

한국교회 자원봉사 컨퍼런스

-변화하는 자원봉사자, 지원체계의 새로운 거버넌스 모색-

일시 | 2016년 10월 18일(화) 9:30-12:00

장소 | 서울시청 별관 의원회관

주최 | 2016디아코니아코리아 조직위원회,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관교회 | 은평성결교회

인사말

올해,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제3회 기독교사회복지 엑스포(2016년 디아코니아 코리아)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는 스스로 “부흥은 했지만 성도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영적 거장인 빌 하이벨스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겸손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으로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이것이 이 시대 기독교가 처한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성장에만 관심을 두고, 세상의 어려움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 실천 역시 성도만을 그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 역시 회생과 섬김보다는 그저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고 오로지 성도들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교회의 성장에만 관심을 둘 때 교회는 점점 본질을 잃어가게 됩니다. 본질을 잃은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들이 나라와 그 지역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실천을 사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가 더 나아가 교회끼리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자의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들과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 시대적 흐름에 필요한 요구에 이번 자원봉사세미나에서 발표되는 주제들은 봉사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원봉사 세미나에서 다뤄질 주제는 1세션: “교회봉사자의 섬김의 자세와 리더십의 변화”, 2세션: “교회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거버넌스 모색”입니다.

보다 효율성 있게, 잘 섬기기 위해서는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섬김에는 기독교인과 비 기독교인이 구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마음이 더 넓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아파할 때 한국 교회는 어디에 있었냐고 물을 때 ‘거기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나라와 지역사회로부터 외면 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은 나눔과 실천을 교회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내 민족을 책임지고 섬긴다는 교회의 사명은 어려움 속에서 시대의 아픔을 같이 하고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처럼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섬김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많은 이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각 교회가 이러한 사명으로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된 교회는 결국 이 사회의 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홀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닌 ‘함께’ 사회와 이어지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훗날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었기에 좋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움을 실천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노력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진정으로 섬김의 그 자리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태수 담임목사(은평성결교회)

일정표

1. 일시 : 2016년 10월 18일(화) 09:30-12:00
2. 장소 : 서울시청 별관 의원회관
3. 행사 일정

시간	순서	내용
09:30~09:40	시작기도	한태수 목사(은평성결교회 담임목사)
	세션1 좌장	박용순 교수(성결대학교)
09:40~10:15	주제발표 1	“교회봉사자의 섬김의 자세와 리더십의 변화” - 김성철 교수(백석대학교)
10:15~10:35	토론 1	“인성을 갖춘 봉사자” - 이만복 교수(세경대학교)
	토론 2	“김성철 교수의 ‘교회봉사자의 섬김의 자세와 리더십의 변화’ - 김한호 교수(서울장신대학교)
10:35~10:45		휴식
	세션2 좌장	김의욱 국장(서울시자원봉사센터)
10:45~11:20	주제발표 2	“교회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거버넌스 모색” - 기독교 자원봉사활동,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승훈 교수(숙명여자대학교)
11:20~11:40	토론 1	“교회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거버넌스 모색” - 이화옥 센터장(강남구자원봉사센터)
	토론 2	“교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거버넌스 모색” - 한명섭 관장(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11:40~11:45		휴식
11:45~12:00	제언	한태수 목사 (은평성결교회 담임목사)

목차

주제발표 1	
“교회봉사자의 섬김의 자세와 리더십의 변화” - 김성철 교수(백석대학교)	1
토론 1	
“인성을 갖춘 봉사자” - 이만복 교수(세경대학교)	21
토론 2	
“김성철 교수의 ‘교회봉사자의 섬김의 자세와 리더십의 변화’” - 김한호 교수(서울장신대학교)	29
주제발표 2	
“교회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거버넌스 모색” - 기독교 자원봉사활동,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승훈 교수(숙명여자대학교)	33
토론 1	
“교회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거버넌스 모색” - 이화옥 센터장(강남구자원봉사센터)	51
토론 2	
“교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거버넌스 모색” - 한명섭 관장(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55
제언	
한태수 목사 (은평성결교회 담임목사)	61

“교회봉사자의 섬김의 자세와 리더십의 변화”

김성철 교수(백석대학교)

목 차

- I. 여는 글
- II. 자원봉사자의 섬김의 자세
- III. 리더십의 변화
- IV. 교회봉사자의 사명
- V. 나가는 글
- VI. 참고문헌

I. 여는 글

현대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강한 복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향해야 할 사명은 사회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을 외면하고 소외된 곳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세인들의 비판과 경멸의 대상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많은 종교단체의 역할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재에 기독교는 지역사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기대치를 만족하기 위한 사회봉사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¹⁾

사람들은 자원봉사활동을 도움의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돕는 행위 그 자체는 자선 혹은 선행이라고 말한다. 자원봉사는 돕는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행동이다. 따라서 자선과 자원봉사가 다른 것은 자원봉사에는 목적체계와 실천체계 및 평가체계가 구성된 일련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은 인터체인지와 같으며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요구되는 내용의

1) 최송규(2014),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교회 성도의 의식변화 연구,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선정, 조직 및 활동, 지원체계, 시설, 자원, 기간 등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을 프로그램(program) 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은 인터체인지를 설계하는 것과 같다. 다양한 지향성을 가진 구성요소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진입하여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교회봉사자의 섬김의 자세와 리더십의 변화”라는 주제에서 교회봉사자의 개념을 교회자원봉사 프로그래머(programmer)의 입장에서 고찰해보며, 섬김의 자세와 리더십을 servant leadership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념

교회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성도들이 자신의 동기나 욕구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터전을 개발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를 위한 활동 터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활동거리, 즉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없으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²⁾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관리(management)의 문제가 중요하고, 자원봉사자의 중도 탈락과 참여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모집, 선발, 훈련, 배치, 지도감독, 보상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관리이론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회자원봉사에서도 이러한 관리와 지도 감독, 보상의 부분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자원봉사자 개발의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지역 간, 계층 간의 소득격차와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어 새로운 차원의 사회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국가는 개인적, 사회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정체제와 정책적 통로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은 국가의 정책과 행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 개인들이 지역사회와 가족,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공생·공존하는 마음과 행동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사회봉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³⁾

교회, 사회복지기관, 학교, 직장, 의료기관,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개인 등 모든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교회의 목적과 업무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긴 하지만 거의 모든 일이 유급직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회도 있고,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자원봉사자가 업무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교회도 있다. 이렇듯 교회 내 참여 정도는 각기 달라도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다. 교회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한지 규명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응답하여야 한다.

첫째,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한가? 즉,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 업무 성격에 맞는 유능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결정되고 그러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계획도 수립되는 것이다. 오늘날 자원봉사자들은 분명하게 규정된 업무를, 한정된 시간 안에, 성취감을 맛보면서 활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둘째,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익이 더 많은가? 자원봉사자는 유급직원을 활용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주는 반면, 교회는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데 교회의 자원을 소비해야 하므로 이 둘 사이의 비용 효과를 비교 측정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교회에서 자원봉사자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교회의 장·단기 사업계획에 따라 열정을 갖고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시간을 기부하도록 설득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 또한 그들이 기여하는 시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종전의 방식대로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을 접수(intake)하여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참여 동기 요인과 욕구 및 관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잠재적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자원봉사를 모집하기까지는 하는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소홀히 함으로써 원래의 취지와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하거나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교회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은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본다.⁴⁾

II. 자원봉사자의 섬김의 자세

1. 섬김의 분야별 교회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영역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다양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김동배(2005)는 이럴 경우 하나의 자원봉사활동이 분류 기준의 차이에 의해 중복 설명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고 보았다.⁵⁾

교회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활동의 장과 대상, 과업의 성격, 개입방법에 따라 구분해 보면, 활동의 장은 국제,

2) 김성철외(2009),『교회자원봉사』,공동체. 참고.
3) 윤희숙(2010), 임파워먼트가 봉사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교회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성철외(2009),『교회자원봉사』, 공동체 참고.
5) 김동배(200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학지사 참고.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학교·병원 등으로 나뉘며, 활동의 대상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으로 나뉜다. 과업의 성격은 직접적 원조, 예방적 활동, 전문적 활동, 일반적 활동 등으로 나뉘며, 개입방법은 직접적 개입(대부분의 활동 해당)과 간접적 개입(이사/위원으로 활동)으로 나뉜다.

교회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나누는 또 하나의 방식은 공동체의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각 공동체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공동체 전문가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다.⁶⁾

2. 섬김의 주체별 교회자원봉사 프로그램

교회에서의 자원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부담 없이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이다. 누구나 바라는 것이 없이 자발적으로 꾸준히 할 수만 있다면 해볼 만한 소중한 일이 교회에서의 자원봉사이다. 따뜻한 손길과 부지런한 발걸음을 기다리는 곳도 많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다. 시간을 내고 손발과 두뇌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

김영호(2006)는 그러나 자원봉사는 아무나 할 수 없으며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지를 먼저 알고 해야 한다고 본다. 자원봉사자로서 지켜야 할 자세를 익힌 다음 활동해야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활동의 주체를 아동 및 청소년, 직장인, 여성, 어르신을 중심으로 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이 있다. 김영호 외(2006).⁷⁾

3. 섬김의 리더십

오늘의 시대에 가장 인구에 회자되는 주제어 중의 하나는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산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정치의 현장에서 심지어 교회와 교육의 현장에서도 리더십이라는 말은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듯 리더십이 각 학문의 영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작금의 시대적인 상황이 지극히 불안정하며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게 되었다는 현 시대의 불안감을 반영한 결과이다. 더욱이 속도와 정보의 양을 중요시하는 정보화(IT)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 해결을 종용받은 실존적인 위기에 서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참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며, 또한 어떤 소양을 갖추어야만 참 리더가 될 것이냐의 문제는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는 윤리적인 물음을 갖는다. 물론 리더십에 대해 모두가 통일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학문의 영역과 리더십을 요구하는 현장 사이에서 보다 더 다양하게 논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상당수의 학자들이 의견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리더십의 개념을 권력과 힘의 속성으로 보는 것보다 관계이자 영향력으

6) 김성철외(2009).『교회자원봉사』. 공동체 참고.
7) 김영호 외(2006).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참고.

로 점차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 수평적 대화

섬김의 리더십은 수직적인 지시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다가가기 때문에 상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수님과 바울처럼 상대의 자리로 내려와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변혁시켜 나가는 것이다. 조직체와 구성원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려면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으로 보았다. 가치관의 혼란과 바람직한 리더십의 부재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 시대에 섬김의 리더십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다. 이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워두신 전략의 핵심이다.

2) 커뮤니케이션

섬김의 리더십은 섬김을 받는 자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 필요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들을 도우려면 그들을 돕기 위해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그들과 일체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리더들을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런데 리더들 대부분이 명령하고 남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가가려고 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섬김의 리더의 특징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증가될 것이다. 리더십이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통하여 특별한 공동체의 변화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인간 상호간의 영향력이기 때문이다. 리더십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무리 올바른 철학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해시키지 못하면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⁸⁾

3) 서번트 리더십

제임스 헌터(James. C. Hunter)가 리더십을 가리켜 “공동의 최선을 위해 설정된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술인 동시에 사람들의 신뢰를 형성하는 인격이다.”라고 정의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에서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린리프(Robert K. Greenleaf)가 1970년대 초에 이미 주장해 왔던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은 오늘 사회의 각 영역에서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주목받게 되는 리더십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리더의 개별적 능력과 특성, 그리고 리더십의 효과에 집중하던 때에 보다 근본적인 접근방법으로서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 현대 교회에서는 이 서번트 리더십을 보다 더 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영적 리더십(Spiritual Leadership)을 강조하고 있

8) 강금연(2013), 섬김의 리더십을 통한 학원복음화에 관한 연구: 백석문화대학교 '기독교의 이해'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영적 리더십의 실제적인 방법론의 접근은 여전히 서번트 리더십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논자는 이에 주목하여 그린리프 이후에 현대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이것이 기독교교회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성경적인 리더십과 어떻게 상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린리프를 시작으로 한 서번트 리더십은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서번트'에서 발견되는데 '공동의 최선을 위해 설정된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술인 동시에 사람들의 신뢰를 형성하는 인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먼저 서번트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타인의 관심과 행복, 성취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여 함께 협력하면서 조직이 가야할 방향을 예견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인격중심의 리더십인 것이다.

서번트 리더십은 서비스와 청지기정신으로 조직원과 함께 일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이 있음을 논하였다. 서번트 리더십의 원리는 영향과 섬김, 비전과 소망, 인격과 신뢰, 관계와 능력, 의존과 책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영향과 섬김은 리더십을 권력으로 봄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보는 관점이며 동시에 예견가능성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하는 지도력을 의미한다. 비전과 소망은 선견지명과 통찰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의 세계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속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며 좀더 나은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자 동시에 초연한 자세로 오늘날의 사건을 분석하고 역사의 기나긴 격랑에서 현재의 사건을 분석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투영하는 것을 말한다. 인격과 신뢰는 존경, 윤리적 행동이 있는 공동체를 기본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만이 무한한 사랑을 잉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 사랑이 있을 때만이 공동체이기를 포기한 제도적 기관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관계와 능력은 리더십의 중심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며 능력은 영향을 위한 잠재력으로 분명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관계의 리더십이 요청된다는 의미이다. 의존과 책임은 공동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으로 '무한책임'에 이르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제도적 기관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에 모두가 무한책임을 떠맡는 대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다. 아울러 서번트 리더십의 특성은 인내, 친절, 겸손, 존중, 무욕, 용서, 정직, 헌신, 사랑으로 규정할 수 있고 서번트 리더십을 이루는 요소는 타인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밝힘으로써 확신과 목표의식을 세워주는 종의 섬김, 사회를 향한 변혁의 시도로서 사역 변혁, 상호의존의 관계로서 관계지향적이다.

4) 리더십 연구의 제 이론

리더십 연구의 제 이론들은 크게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변혁적 리더십이론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성이론은 리더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으로서 리더의 개인적 특성이 리더십 성공을 결정한다는 전제하에 리더십을 설명한다.

행동이론은 리더 개인의 특성보다는 리더십의 행동적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어 객관적인 관찰을 전제로 한 이론이다. 상황이론은 리더와 조직체의 숫자가 무수하며 각각의 상황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적합한 한 가지의 리더십 유형을 제시할 수 없다는 특성이론과 행동이론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이론이다.

5) 변혁적 리더십 이론

변혁적 리더십은 베버(Weber, T.)가 처음 논의를 한 후에 번스(Burns, J. M.), 바스(Bass, B. M.)에 의해 행동리더십모델로 정립되었다. 사람들과 조직을 변혁시키는 것으로 정신과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며 지속적이고 생산적이며 관성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거래적 리더(transactional leader)와 대별되는 리더 모델이다. 거래적 리더는 하위자에게 각자의 책임과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각자의 행동에 어떤 대가가 돌아갈 것인지 합의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와 달리 변혁적 리더는 주어진 목적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하위자의 인식수준을 제고시키고, 하위자가 개인적 이익을 넘어서서 자신과 집단, 조직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하위자의 욕구수준을 매슬로우(Maslow, A. H.)가 제시하였던 상위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하위자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리더이다. 즉,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기대되었던 성과"만을 하위자로부터 얻어내는 반면,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하위자로부터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6) 성경적 리더십 이론

성경적 리더십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리더십이 자리함을 전제로 그 기초로서 정체성, 생존, 의미를 예시했다. 성경적 리더십의 원리로서 첫째 성경적 리더십은 섬김에 관한 것이고 둘째, 성경적 리더십은 비전에 관한 것이고, 셋째 성경적 리더십은 신뢰에 관한 것이고, 넷째 성경적 리더십은 능력에 관한 것이고, 다섯째 성경적 리더십은 책임에 관한 것임을 상론했다. 이를 전제로 성경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우선 '종됨'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곧 서번트는 성도 모두를 위한 일반적인 진리로서 이것은 어떤 관계나 상황에서도 섬기는 삶이어야 하고 그런 원리 하에 추종자들에게 리더는 리더십을 행사해야 함을 말한다.

7) 성경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 비교

성경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의 친교, 그리스도 안의 언약, 위탁으로의 부르심이 능력의 근원이지만 서번트 리더십은 변하지 않는 중심으로서의 자연의 원칙이 그 근원을 이룬다. 이는 양심이라는 내면의 도덕률을 지칭한다. 또한 리더십의 동기를 서번트 리더십은 현대인의 정체성과 산적한 위기들에서 찾지만 첫째는, 성경적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명령에서 그 동기를 찾는다. 그린리프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먼저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서번트 리더를 찾는 것과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인격적인 접근에 있어서 유사점을 갖는 것으로서 이는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절박한 효과 면에서 리더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의 성장과 성숙, 새로운 리더로서의 발굴을 지향하는 점에서 그 일치점을 찾을 수 있다. 셋째는 소망을 주는 비전으로서 막연한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불확실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직관적 통찰로 꿰뚫는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적 리더십 또한 비전과 희망을 공유하는 점에 있어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관계로 비롯되는 능력에 있어서 양 리더십은 공통점을 갖는다. 다섯째로 책임성의 문제에 있어서 서번트 리더십과 성경적 리더십은 깊은 교감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성경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의 차이는 먼저 리더의 능력의 근원을 어디에 두는가가 근본적인 차이이라 할 수 있다. 성경적 리

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의 가장 큰 차이는 성경적 리더십은 종말론적 리더십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본질적인 차이를 이루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리더의 가치관에 대한 영적인 도전으로서 인간 존중에 관한 가치의 관점에서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십의 기초를 인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물론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윤리학적인 면에서 접근하기보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언급하며 제도적 기관과의 관련 하에서 리더십의 부재를 부각함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기도 하다. 곧 맹목적인 신뢰로서 권위에 대한 존경심과 리더십의 카리스마에서 비롯한 신뢰가 사라지는 현상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는 리더십의 핵심을 서번트 리더십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과 사명에 대한 가치의 관점에서는 노동과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업윤리의 도래를 예견하고 있는 서번트 리더십을 논하였다. 서번트 리더십은 인격과 인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인격이란 도덕적인 성숙을 의미하고 설령 희생이 따르더라도 기꺼이 옳은 일을 추구하는 의지임을 밝혔다. 서번트 리더십의 인격성을 강조하며 변화없이 리더십도 없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변화의 수용과 표용은 ‘학습’으로 가능하며 장기적인 노력만 있으면 제2의 본성으로 만들 수 있음을 역설한다. 곧, 서번트 리더십은 공동체성을 담보하는 조직체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동력을 제공하는 리더십이며 변화를 필연적인 리더십의 결과이다.⁹⁾

III. 리더십의 변화

기독교의 세계적인 추세는 심각한 침체에 빠지고 있다. 영국은 40년 안에 교회가 사라지고, 미국은 20년 후에 기독교인의 3분의 1만이 교회를 지킬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국교회는 2002년을 정점으로 침체에 빠져 2005 기준 기독교인은 862만 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1.6%, 14만4,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침체는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처럼 한국교회의 존립이 달린 문제이다.¹⁰⁾

현대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 안팎의 여러 문제들이 언론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져 이제는 비판을 넘어서 비난에 가까운 태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냉소성은 비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심지어는 교회 지도층들에게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구성원인 성도들의 참여 확대를 지향하는 리더십의 변화와 교회형태의 변화이다.¹¹⁾

오늘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사업, 조직구조, 직무, 제도·시스템, 그리고 조직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직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율과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현대에 있어서는 자기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감독자가 자기기준에 의한 지시와 감독으로 일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 밀어붙이던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이 부각되는 리더십이 바로 진성리더십이다.¹²⁾

현대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비인간화되고, 사물화 되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타자를 위한 교회로써 지녀야 할 윤리적 덕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 속에서 구세군 신학 안에 있는 봉사윤리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윤리라고 볼 수 있다. 구세군 봉사 윤리가 의도하는 바는 개인의 믿음, 구원, 성화와 같은 영적인 영역이 이웃사랑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꿈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구세군의 사상을 소개하고,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전파와 이웃사랑의 실천(봉사) 회복을 통해 기독교 갱신의 꿈을 함께 모색하면서 교회가 나가야 할 바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나 많은 교단들은 복음전파와 이웃사랑실천 중에서 복음전파에 우선권을 두거나 강조한다. 아니면 이웃사랑(봉사)은 복음전파의 도구로 간주할 정도이다. 이런 현상 속에서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삶은 이웃사랑(봉사)이 약화되고 이기적인 면은 강화되어, 교인들이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외에는 그들이 신앙인인지 비신앙인지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구세군은 초기부터 이웃사랑(봉사)을 구세군 사역의 본질임을 언급한다. 구세군은 자기 삶의 자리가 19세기 동런던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정부도 교회도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않을 때, 구세군은 그들 대상으로 복음전파와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그들을 구원하였다. 구세군의 봉사 윤리는 성서의 토대 위에 있다. 구세군의 봉사는 어떤 윤리신학적인 근거에서 도출된 것이 아닌 성서가 교훈하고 예수가 본을 보여준, 종의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구세군의 봉사(섬김) 윤리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계보를 마련하고, 그 계보들 속에서 구세군의 윤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이웃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써 책임윤리, 상황윤리, 종의 윤리, 타자 윤리인 것을 논한다. 구세군의 윤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으로써 첫째는 책임윤리이다. 마치 이것은 예수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책임 있게 행동하며 구원하였듯이 구세군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책임감을 갖는 윤리이다. 둘째 구세군의 윤리는 이제껏 기존 교회들에서 없었던 가난한 자들의 구원을 위한 교회를 만들었고, 교인들 대다수가 알코올 중독자들이었기에 성례전도 알코올이 없는 성령성례전으로 변경하였다. 이런 면을 보면 구세군은 어떤 정해진 규범보다 상황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상황윤리이다. 셋째로 구세군의 윤리는 군림하거나 먼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종의 자세로 먼저 찾아가 섬기는 윤리이다. 넷째로 구세군의 윤리는 타자의 윤리이다. 구세군은 소외된 사회의 약자들을 위하여 어느 교단보다 사회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 세계의 소외된 자, 약자인, 타자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 힘쓰는 윤리이다. 예수는 선교지역 선택을 소외된 지역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고, 공생애를 거의 그곳에서 보였으며, 선교방법은 복음전파와 이웃사랑(봉사)이었다. 윌리엄 부스도 이 예수의 방법을 그대로 본받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선교대상으로 정하고, 이웃사랑(봉사)을 위해 윤리는 책임윤리, 상황윤리, 종의 윤리, 타자 윤리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현대교회는 잃은 것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가 실천하며 본을 보였고, 윌리엄 부스가 계승한 봉사의 윤리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¹³⁾

그리고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여성 지도력은 한국교회를 성장시킨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성장이 둔화되어 교회마다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어있다. 현대 교회의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남성목회자 중심의 교회 안에서 등한시되었던 여성 리더십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교회에 미래지향적이고 긍정

9) 이종석(2007),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고찰,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0) 권순호(2010), 현대 교회의 교회 갱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이일호(2009), 교회 내 리더십과 성도들의 조직냉소주의, 조직몰입 및 신앙성숙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박상길(2016), 진성리더십이 조직변화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집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안건식(2016), 구세군의 봉사윤리 연구(A Study on The Servant Ethics of The Salvation Army)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적인 효과의 증진을 확산시켜 교회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사회는 여성 리더십의 역할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으며 조직사회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이 조직과의 친화력이 남성에 비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 리더십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의 리더십을 위하여 첫째, 여성 리더십에 대한 교회 인식변화 및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여성사역자의 자리를 넓혀 주어야 한다. 둘째, 여성 리더십에 대한 자질을 모색함으로써 여성 리더십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여성 리더십의 역할모델을 탐구하여 여성 리더십의 활성화를 강화시켜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여성 리더십의 활성화 방안은 첫째, 교회 안에 여성교역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리더십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 리더의 자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훈련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여성 고유의 특성을 이용한 지도력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역할모델이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독교 여성 리더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함을 제시한다.¹⁴⁾

IV.교회봉사자의 사명

한국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와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국가는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체제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방임주의적인 태도는 오히려 극심한 소득양극화를 초래하였고, 후기 산업사회의 등장과 함께 발생된 여러 가지 신사회 위험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험잡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빈곤·장애·소외 등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수급자격기준과 공공전달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국가의 제도권 밖에 놓여있는 복지소외계층의 삶이다.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의 자살사건을 통해서도 그 심각성을 가늠해 볼 수 있듯이 누군가가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마저 포기한 채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복지소외계층을 돕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민간사회복지 안전망으로서 지역사회 내 교회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교회는 정부나 지자체의 공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과는 달리 종교적인 신념에 가치를 둬으로써 보다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한국교회는 100여년의 짧은 기독교 선교역사를 가졌지만 세계교회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 왔다. 그동안 기독교인들의 뜨거운 기도운동, 성서연구, 전도, 심방 등 헌신적인 삶이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는 교회성장의 정체,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의 확산 그리고 그에 따른 대사회적 영향력 감소와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위기를 불러 온 핵심적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교회 지도자, 특히 목회자의 리더십 상실이다. 목회자가 리더십을 잃어 가는 이유는 목회자의 권위와 신뢰가 상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성장연구소가 불신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목회자를 ‘신뢰한다’는 사람이 10%도 안 되는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46%에 달했다.¹⁶⁾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모든 방면에서 변화를 시도해 보아야 한다. 본질은 붙잡아야 하지만 나머지 비본질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⁷⁾

한국교회의 현상은 사회적 요인과 교회 내외의 영향력 상실로 인한 교회성장 동력을 상실하였다. 세속화, 종교다원화, 극단적인 개인주의, 지식정보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한 절대 진리 빈곤, 사회적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였다. 또한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의 본질이 훼손 되어감으로 심각한 침체에 빠지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¹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이다.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의식도 정체되어 있지 않고, 설교와 양육훈련, 실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계속 변화 되어져 가야 할 것이다.¹⁹⁾

21세기 세계 상황은 기독교 선교에 강력한 도전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속화, 물질주의,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던의 영향을 받은 서구 교회는 한 때 기독교 왕국(Christendom)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던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의 역할과 영향력이 시간이 갈수록 주변화 되고 있다. 또한 신흥 종교와 타종교들의 부상으로 말미암아 일반 사회에서 기독교가 갖는 공신력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²⁰⁾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는 위기의식 가운데에서, 다음세대의 신앙전수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선교적 리더십을 함양한 기독교인으로 세워가는 것을 의미한다.²¹⁾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이며 유일한 주제인 교회갱신에 있어서 그 키가 되는 교회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다. 침체된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이고 확실한 대안은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듯이 교회갱신 통하여 초대교회의 모델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 가능하며 교회갱신에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²²⁾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비추어 드러난 현대교회의 상황들로서 성도의 미성숙과 사역의 불균형, 리더십과 제도적인 결함, 전도부진과 병리현상에 의한 침체, 제도화된 교회와 교회경영의 세속화,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의 폐해 등을 다루었다.²³⁾

현대 사회의 노인은 전문성을 지닌 재능기부가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회를 위해 환원한다면 성경의 정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해외까지 그 역량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²⁴⁾

16) 정원남(2007), 건강한 목회 리더십 개발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정대승(2016), 정체된 소형 도시교회의 리더십변화에 따른 교회성장 방안 연구, 홍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8) 권순호(2010), 앞의논문.

19) 최송규(2014), 앞의논문.

20) 조재호(2013), 바울의 선교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1) 강민수(2012), 다음세대의 리더십 형성을 위한 핵심역량 중심의 프로그램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2) 권순호(2010), 앞의 논문.

23) 앞의 논문.

24) 유성찬(2015), 교회 노인 자원봉사를 통한 선교 활성화 방안 연구, 홍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손민경(2009), 기독교 여성 리더십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김자경(2015), 민간 지역사회복지 안전망으로서 교회의 역할 연구, 홍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그 동안 한국교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영혼구원, 물량주의 그리고 성장주의 등을 강조하면서 교회 내적인 성장과 교회 일꾼 배양에 집중해 왔다. 대표적인 것으로 교회들마다 조직하고 있는 구역의 구역 리더 교육이나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교회는 교회 내적인 평신도 지도자 양육에는 열심을 내었지만, 정작 교회 밖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평신도 지도자 양성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왔다. 그 결과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로서 지역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천자’로서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봉사자로서의 영향력은 지극히 미흡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디아코니아’(봉사)를 교회 본질적인 관점, 즉 봉사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도’, ‘교육’의 권장과 장려를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포자’와 ‘봉사자’의 불균형 현상은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교회와 세상, 교회와 지역사회의 소통 부재는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교회가 이런 소통 부재의 문제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단순 지역 구제나 구호에 그칠 때가 많았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가 디아코니아 사역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디아코니아 사역들은 지역사회뿐 아니라 교회 밖 세상과 소통하는데 유익한 도구가 되었다. 교회 성도들 역시 디아코니아 사역을 통해 세상과의 소통 부재의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을 인식하게 계기가 되었다. 디아코니아 사역의 틀 위에서 조직을 갖추고 시작하는 디아코니아 사역은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더 의미 있고 실제적인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더불어 작금의 한국교회의 세상과의 소통 부재의 난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실마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²⁵⁾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역함에 있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며 지역사회의 요구가 무엇인지, 또 지역을 섬기기 위한 성도들의 의식변화를 다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²⁶⁾

또한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교인들의 신앙성장을 위하여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의 과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이 성도들의 신앙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여 교회내의 구역장, 목자, 셀리더 등을 양산해 왔다. 그러나 그간의 성경공부나 제자훈련이 ‘교회내 봉사자’를 양육하는 데는 이바지해 왔지만, 지역을 하나님나라로 섬기는 ‘교회밖 봉사자’를 양육하는 데는 크게 미흡하였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이 성도 개인 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경건의 훈련에는 탁월했으나, ‘하나님나라의 책임자’로서 세상을 섬기는 경건의 실천에는 많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교육의 불균형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적 질책의 목소리를 높이게 만들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교회의 섬김사역 중에 지역사회를 하나님나라로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봉사과정을 둔다면, 성도들을 ‘교회내’와 ‘교회밖’을 균형잡히게 봉사하는 제자들로 길러서, ‘하나님나라의 선포자’인 동시에 ‘하나님나라의 실천자’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성도들의 지역사회를 섬기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져서 전도사역과 교회부흥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적, 물적인 한계를 가진 개별 교회가 사회사업에 대한 전문성 없이 지역사회 봉사현장을 개발하

25) 이영우(2014),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디아코니아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하늘샘 교회 중심으로,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목전단독 박사과정 박사학위논문.

26) 최송규(2014), 앞의 논문.

고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교회사회봉사를 모든 목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막상 지역사회 봉사사역이 단순 지역구제나 구호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성도들을 ‘하나님나라의 선포자’인 동시에 ‘하나님나라의 실천자’로 균형있게 세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가 지역의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들을 교회가 운영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자원봉사를 통하여 교회가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봉사관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효과도 얻게 될 것이다.

V. 나가는 글

교회에서 사역함에 있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며 지역사회의 요구가 무엇인지, 또 지역을 섬기기 위한 성도들의 의식변화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현대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강한 복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향해야 할 사명은 사회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목회에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균형 있는 사회봉사를 위해 사회봉사의 신학적 작업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고,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신학적 해석과 사회의 변화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역사회에 맞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세대의 신앙전수과정에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번트 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목회에 있어서 서번트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연구해야 하는 분야이다.

봉사에서 일 자체 의미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봉사자나 기관대상자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봉사자의 임파워를 높일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이나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자기결정성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참여 및 의사소통에 대한 임파워먼트 방안을 세워야 한다. 실질적인 파워 제공, 서로의 논점과 주장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의사결정체계의 수립 및 합의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봉사자의 전문성과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교육방법도 일방적 강의에서 탈피하여 워크숍, 세미나, 현장참여, 활동시연, 사례발표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선택, 실질적으로 봉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적 사회봉사에 발맞춰 교회 자원봉사 또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회의 체계적인 봉사시스템에 의한 임파워먼트된 자원봉사자의 긍정적인 의식이 봉사 대상자의 만족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사회변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독교 선교초기에는 분명히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주고, 사회변화와 사회복지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오늘날 복지활동이 위축되게 된 간접적 요인의 다른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독교의 이미지 추락이다. 근래의 대형교회의 사유화 시도와 교회내부에서의 폭행 사건과 금품수수 사건, 교단부정선거와 교회내부의 부패 등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기독교의 이미지 추락이 복지활동의 간접적인 걸림돌이 되어 복지의지를 소진시킨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한국교회 최대부흥기의 안이한 태도이다.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는 1970년대였다. 1970년에 390만 명 이었던 한국교회가 1980년에 810만 명인 2배 이상의 증가를 이루었던 시기이다. 이런 폭발적인 부흥기에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떤 이미지를 심었는가 하는 점이다. 지역사회복지는 뒷전에 미루고 교회의 성장만을 위한 자기들만의 축제는 아니었나 하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셋째는 교회목회자 양성의 질적 저하이다. 부흥기에 신학교는 학생들이 몰려와 일부 신학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처럼 난립하기 시작했으며 그 수는 313개로 늘어난 상태였다. 이중에 일반대학의 수준학력을 인정 할 수 있는 대학은 15%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니 이때가 한국교회의 최대 부흥기 중에 지도자 양성의 혼란기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시기에 수준이하의 목회자 배출이 복지목회의 치명적 걸림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는 시대적 복지 트렌드의 축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자원 활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도 확대 될 수밖에 없으며 기대와 요구가 크다보니 교회의 복지 대응이 소극적으로 보여 졌을 것이다.

다섯째는 근래에 기독교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정량적, 정성적인 총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적 근거에서 하 다 보니 선한 일의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적 호응과 봄 조성에 실패한 이유도 들 수 있다. 여기에 비해 천주교나 타종교의 중앙집중식의 여론 형성이나 긍정적 홍보는 기독교가 다시 재고해 봐야 할 대목이다.

결국, 선한 사업의 분위기 조성과 홍보는 더 많은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하며 지역사회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의 지역사회복지활성화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면 첫째는 교회의 정신적 부흥운동이다.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사회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고 창의적으로 기여하는 봉사활동이고 지역사회복지 사역에 봉사함으로써 한 지역사회에 정신적 영향을 끼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에 대한 교회의 정신적 부흥운동이 절실하다.

교인들이 이 부흥운동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말씀실천은 구호에 그칠 수 있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정신적 영향을 끼칠 수도 없으며 교회만을 위한 사역으로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과 실천이 일원화가 되는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가 바로 성경적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정신적 부흥운동이 필요하다.

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회의 복지목회가 필수적인데 예를 들면 셀 목회나 밴드목회와 같은 제도의 교육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과 복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부흥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교회 간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교회 간 조직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 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네트워크를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노회, 총회의 상호 협력적 시스템이 정착해야 한다. 그러나 개신교의 장점인 동시에 단점인 개별성과 독자성 때문에 노회나 총회의 정책이 교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교회 목회자가 교회 내부의 역량과 관심도와 목회목표에 따라 일방적으로 사회복지를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총회가 정책을 개발하고 노회가 사업을 수행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지역교회는 이러한 총회적인 정책에 따라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며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를 수행하고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된다면, 총회와 노회 그리고 지역교회가 같은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가질 수 가 있고, 교회 간 중복된 복지사업의 조율과 지역사회에 공동의 시너지를 얻게 되고, 교회 간 조직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 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복지"가 실현될 것이다.

셋째는 교회 간 네트워크를 지역사회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①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의 재원과 시설을 활용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지역사회에서 접근성과 봉사인력이 풍부한 교회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주민센터)와 협력 구조를 만들고 역할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공공기관의 복지의 한계점을 비영리단체인 교회가 "틈새복지"를 감당하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타 종교와의 네트워크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종교적 교리가 다른 것이 걸림돌이 되겠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근본정신은 동일하다고 볼 때 지역사회복지의 상호 협력적 보완관계의 네트워크는 종교계가 해볼 만한 도전이 될 것이다. 종교계가 지역사회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가 조직화,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종교별로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상설 기구를 만들어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기구는 각 종교 산하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와 연합하여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사례 연구를 통한 종교사회복지의 실천모델을 개발해 나가면서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③ 시민사회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시민단체는 대체적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교회와 시민사회조직과의 연대는 지역사회활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NGO중 환경단체나 YMCA, YWCA같은 사회조직과의 인적, 물적 교류는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지역복지에 새로운 유형개발이 될 것이다.

넷째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다. 지역사회의 공급자원인 다양한 지역자원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정부와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에 오랫동안 일해 온 정부의 복지기관과 행정기관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와 정부 간에 이루어졌던 사회복지에 대한 관계발전은 교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을 선교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반면, 정부는 적은 비용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교회와 분담 할 수 있었던 정부와 종교의 공생관계는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역기능적인 작용을 했던 것은 분명하나 이제는 순기능적인 요소를 찾아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복지예산을 늘려서 복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의 동기부여정책과 복지교육의 체계화, 정부의 복지기관과의 협력구조개발 같은 주로 하드웨어의 개발과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교회지역사회복지의 기능과 역할의 소프트웨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의 정책제언을 하면서 한국교회의 지역사회복지의 정체성 회복을 기대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부흥을 위하여 예배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만 전념하면서 그 결과로 교회는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것은 균형 잡힌 성장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성장이었다. 왜냐하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 본질의 사명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많은 교회가 사회복지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교회가 수행할 수 있는 교회 사회

복지 실천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실제로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교회사회복지가 널리 실천된다면 기독교와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회복될 것이며, 교회가 복음 확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미래는 한국의 교회들도 지역사회복지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유럽교회화(교회가 감당하던 사회복지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면서 교회들이 쇠퇴기를 맞은 현상)로 진행되어간다는 위기의식과 복지활성화야말로 한국교회의 활로이면서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는 사명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와 봉사, 말씀 선포와 함께 말씀 실천의 일원화가 다 포괄되는 균형 있는 사회복지목회가 이뤄짐이 바람직할 것이다.²⁷⁾

현대사회에서 자원봉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과거에 비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사회구성원이 고립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며 사회의 정상적 유지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이 급속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정부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조직만이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비 정부조직체의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자원봉사는 과거에는 인간애를 기본으로 한 무조건 주는 태도 또는 베푸는 행동으로서의 의의가 컸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선 또는 구호중심의 전통적 자원봉사 대신 산업화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의미의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사회공동체의 약화 방지를 위해서나 시민교육, 복지교육의 증진과 사회참여의 확대,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욕구의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사회적, 제도적 장치로서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새로운 조직과 집단이 대체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자원봉사는 이러한 사회복지제도의 보완전성을 보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가의 선용과 자아실현에 기여함으로써 생의 보람과 희망을 갖게 되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현대사회의 각종 문제는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적,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 해결도 집단적,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자원봉사는 기존의 조직을 새롭게 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나비효과에 비유되기도 한다. 「나비효과」란 기상학의 카오스 이론에서 유래된 말로 시작은 작지만 그 결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즉 한 사람 한사람이 참여한 헌신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작은 힘들이 모여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봉사자의 섬김의 자세와 리더십의 변화 속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속에 신념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모여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길 바란다.

27) 이은수(2011),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 예수마을교회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VI. 참고문헌

1. 국내서적

- 김동배.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학지사, 2005.
- 김범수 외. 『자원봉사의 이해』. 학지사, 2004.
- 김성철외. 『기독교와사회복지』. 한국기독교사회복지회, 1995.
- 김성철. 『교회사회사업의 전망과 과제』. 한국학술정보, 2009.
- 김성철. 『Diakonia』. 평화사회복지연구소, 1999.
- 김성철. 『나눔과 섬김의 복지』. 한국학술정보, 2008.
- 김성철외.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05.
- 김성철. 『교회사회사업』. 평화사회복지연구소, 2005.
- 김성철. 『교회사회복지론』. 평화사회복지연구소, 2006.
- 김성철. 『나눔과 섬김의 교회』. 평화사회복지연구소, 1999.
- 김성철. 『미래사회와 인간』. 평화사회복지연구소, 2001.
- 김성철외.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 학지사, 2003.
- 김성철외. 『교회사회사업편람』. 인간과복지, 2003.
- 김성철. 『교회사회복지실천론』. 한국강해설교학교, 2002.
- 김성철. 『사회복지적 리더십』. 한국학술정보, 2007.
- 김성철. 『나눔과 섬김의 교회』. 평화사회복지연구소, 2002.
- 김성철외. 『교회자원봉사』. 공동체, 2009.
- 김성철. 『NGO와 리더십』. 평화사회복지연구소, 2007.
- 김성철외.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양서원, 2014.
- 김성철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2.
- 김성철외. 『지역사회복지론』. 양서원, 2012.
- 김성철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12.
- 김성철외. 『사회복지시설경영론』. 양서원, 2012.
- 김성철외. 『사회복지개론』. Pacific Books, 2015.
- 김성철외. 『사회복지지도감독과 현장실무론』. Pacific Books, 2015.
- 김성철외.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2016.

김성철외.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양서원, 2016.
 김성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21세기사, 2016.
 김성철. 『교회 사회봉사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의교회 복지재단, 2001.
 김영호 외.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2006.
 김익균 외. 『자원봉사론』. 교문사, 2004.
 류기형 외. 『자원봉사론』. 양서원, 2005
 류종훈. 『사회봉사와 선교 복지론』. 21세기사, 2007.
 박종삼. 『교회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인간과복지, 2000.
 유의영.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이성록. 『자원봉사 어드바이저-자원봉사 상담가(Advisor) 길잡이』. 미디어숲, 2005.
 조휘일.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홍익재, 2002.
 종교사회복지포럼 편.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 학지사, 2003.
 최무열.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나눔의 집, 2004.
 최호운. 『사회복지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21세기사, 2007.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교회사회사업편람』. 인간과 복지, 2003.

2. 학위논문

강금연. “섬김의 리더십을 통한 학원복음화에 관한 연구 : 백석문화대학교 ‘기독교의 이해’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3.
 강민수. “다음세대의 리더십 형성을 위한 핵심역량 중심의 프로그램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2.
 권순호. “현대 교회의 교회 갱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0.
 김자경. “민간 지역사회복지 안전망으로서 교회의 역할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2015.
 김성철. “특수선교로서의 교회사회사업방법론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0.
 박상길. “진성리더십이 조직변화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집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2016.
 손민정. “기독교 여성 리더십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9.

안건식. “구세군의 봉사윤리 연구(A Study on The Servant Ethics of The Salvation Army)”.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6.
 유성찬. “교회 노인 자원봉사를 통한 선교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15.
 윤희숙. “임파워먼트가 봉사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교회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이영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디아코니아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하늘샘 교회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4.
 이은수.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 : 예수마을교회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2011.
 이일호. “교회 내 리더십과 성도들의 조직냉소주의, 조직몰입 및 신앙성숙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이종석.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7.
 정대승. “정체된 소형 도시교회의 리더십변화에 따른 교회성장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16.
 정원남. “건강한 목회 리더십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조재호. “바울의 선교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3.
 최송규.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교회 성도의 의식변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4.

“인성을 갖춘 봉사자”

이만복 교수(세경대학교, 강원효문화원 대표)

I. 들어가는 말

자원봉사란 인간성을 회복하고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사회를 사랑과 화합으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 사람들 간에 행복의 징검다리를 만들어가는 복지적 활동이며, 만남의 친교와 나눔의 활동이며, 존엄의 가치를 부여한 인간애(人間愛)의 실천적 활동이다. 또한 공동의 행복추구를 이룩하기 위하여 존엄성, 자발성, 자율성, 상호성, 연대적 실천행위이며, 창조적 방법으로 책임감을 동반한 섬김과 나눔의 활동이다.

우리가 남에게 봉사하는 것은 상대에게 복종하는 것도 아니요, 상대를 비호하거나 상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며, 성도로서의 의무 즉 인간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실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봉사자들의 사랑실천 행동으로 행복추구의 교량역할을 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봉사자의 역량에 따라서 공동체 의식을 체험할 수도 있고, 때론 더 깊은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다. 우리는 분명히 성도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 대한 봉사를 마땅히 행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하계 봉사현장에 나아가 덕()이 안 되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다.

II. 봉사자의 품격

1. 인성의 의미

인성이란 인간의 본성으로 자신만의 삶에 모습으로서 바라고자 하는 생각과 행위의 출발선을 의미하고 올바른 가치와 도덕성을 겸비한 인간으로서 품격을 다듬어가며 정의와 공정을 가늠하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성을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존재를 유지하면서 공동체적인 삶에 적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신적인 세계에 접근해가야 하는 과정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고, 인간이 정도(正度)의 길을 걸어야 하며 성숙한 성품으로 도달(到達)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2015년 7월 21일 시행 인성교육법 제2조 1항에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하며 핵심 가치덕목은 예(禮), 효(孝), 정직(正直), 책임(責任), 존중(尊重), 배려(配慮), 소통(疏通), 협동(協同)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김인숙, 2014)는 인성이란 개인의 인품과 사회적·환경적 요구 간의 복합적인 상태에서 개발되어 굳어진 습성을 나타내며 개인과 환경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상태에서 나타나는 태도를 말한다. 인성(人性)이란 글자 그대로 사람의 성품(性品)이며, 성품은 사람의 성질과 품격이다. 그리고 성질은 마음의 바탕이고, 품격은 사람됨의 행위적방식이다. 디아코니아 봉사자란 위와 같은 품격을 갖춘 봉사자를 말한다.

〈인성의 4가지 관점〉

구분	내용
심리학적 관점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되는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의 양식을 포괄하는 품격
사회문화적 관점	사회공동체 안에서 생성된 문화가 개별인간 속에 내면화 되어 존재하는 사고와 가치관
도덕철학적 관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이나 덕목인 인격
행동주의적 관점	사람마다 나타나는 행위적으로 조직화되어 습득된 행동양식

또한 인성은 지정의(知情意)의 움직임이다. 지정을 해석하여 다시 말하면 지(知)는 깨달아 분별하여 사물을 인식하며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情)은 사물에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고 특별히 사랑이나 친근감을 나타내는 말이며, 의(意)는 사람으로서 행동하여야 할 바른 도리를 말하고 무엇을 하겠다고 자신과 약속하고 다짐하는 마음의 작용과 활동이다.

2. 자신, 타인, 공동 인식

1) 자기인식능력

인간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다.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새로운 경험 속에서 다시 생각하고, 기획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을 인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신에 대하여 반성과 후회도 할 수 있으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먼저는 우리의 삶속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인식 하여야 하며, 현재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세심히 들여다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기쁘고, 무엇을 할 때 슬픈지, 그리고 무엇을 몰입할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지 이것을 통하여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

덕이 있고 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 살아 숨 쉬고 유지되기를 원하며, 특히 자기영혼에 있어서 사유(思惟 : 대상을 논리적으로 생각함)와 추론(推論 : 옳은 말을 진술 하는 것)부분이 살아 보전되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현상대로의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해야 한다.

각자를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더욱 도덕성이 살아있고 정의로움을 구분할 수 있는 자신의 존재감과 영혼 속에 있는 지성적인식과 살아있는 양심을 말할 수 있는 생명력을 말한다.

다음은 긴장과 완화 사이에 자신의 현실이 있다. 외로움, 무의미, 공허, 죄책감, 고립 등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으려고 애쓰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향과 돌파구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실패와 좌절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 가는 전환점이다.

우리의 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주거나 조정을 하려고 할 때 경험하는 긴장은 인간적 변화의 준비가 되어있다는 신호이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거의 무한한 적응력을 갖고 있으며, 인간의 행위의 동기가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인간의 현실적 상황에서 자신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2) 타인인식능력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내 삶에도 품위가 생기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간직할 수 있다. 내가 상대를 선한사람으로 인정하고 좋은 사람으로 대하면 그 사람 역시 내 기대에 맞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의 존재와 그 중요성과 감정 그리고 그가 내게 해준 일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즉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그의 합리적(合理的) 자기애(自己愛)가 타인을 귀한존재로 볼 수 있느냐로부터 출발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독특성이나 중심성을 지각하고 싶어 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관련을 맺고 싶어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점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 즉 자신의 정체감을 찾거나 창조하는 것이다.

자신을 찾지 못하고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원만한 관계유지를 못하게 된다. 우리는 타인세계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타인의 존재가 우리 세계에서 중요하다고 느껴야한다.

이 세상에는 지나치게 쉬운 소외된 자들이 많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마25:40)말씀하셨다. 타인을 인식한다는 것은 나와 관계를 형성하기 쉬운 사람들만이 인식될 수도 있지만 관계없는 작은 이웃이 될 수도 있다.

3) 공동의 인식능력

공동성은 단지 감응의 차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동 활동을 한다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이한 속도와 강도(講道)의 위치와 방향등의 성분이 서로 맞추어가며 균형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서로 간에 조화로움의 활동을 의미한다.

공동성은 공동 활동에 참여한 요소들이 서로 간에 리듬을 맞추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조화로움이 잘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의미를 말한다.

사회의 모든 자원은 우리 모두의 사회활동의 결과물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 공동성을 인식을 못하면서 우리 모두가 소유한 공동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편취해가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게 된다.

사회가 점점 분화되고 개인의 권익이 먼저가 되다보니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가치관이 점차 심화되는 모습을 사회현상에서 보게 된다. 따라서 공동의 것에 대한 생활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공동을 인식하는 능력이란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의무를 실행하는 일부터 출발점이 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4대(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무를 지키는 일, 사회구성원들이 공과 사를 분별하는데서 부터 시작이 된다.

공익을 위한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 미시적으로는 몇 몇 사람이 함께하는 공공장소로부터 차례를 지키며 양보하는 일, 거시적으로는 민주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놓은 사회의 규칙을 준수하는 일까지 모두 포함이 된다.

첫째, 인지적인 측면이 있다.

공익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야 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까닭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둘째, 정의적인 측면이 있다.

공익에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공익을 위한 자아성찰을 해야 한다.

셋째, 행동적인 측면이 있다.

공익을 위하여 꾸준한 바른생활 실천이 필요하고, 사회의 약속을 위한 꾸준한 삶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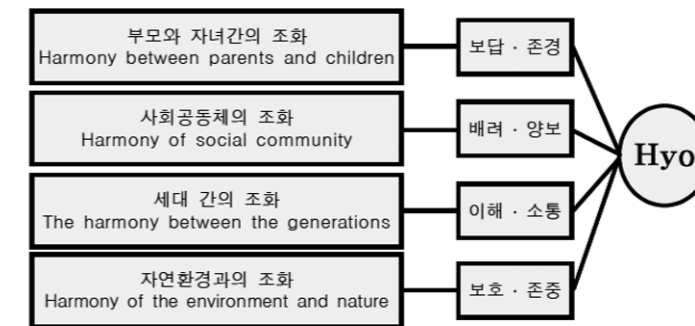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도덕적 모범, 다시 말하면 여러 방식으로 존경받고 있고 상당한 정도로 그들의 지위에 대응하는 이상을 보여주는 사람을 타인들이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도덕을 함양할 수 있는 능력, 성품과 기질을 나타낸다.

3. 하모니 봉사현장

인류봉사는 서로를 존엄하게 여기며 역사, 이념, 종교를 뛰어넘어 조화(harmony)를 이루고 변화하는 공생적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조화, 사회공동체의 조화, 세대끼리의 조화,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행복, 사회정의실현, 국가융성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인간사회는 개인의 특성과 문화, 사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봉사는 역동적이며 환경의 변화를 창출하고 다양한 개체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공생을 통한 인간애(人間愛)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1〉 사회적 체계의 조화모형도



III. 결 론

이웃을 돕고 공동체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며, 참된 인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다.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는 일,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이 사회적 조화로움인 봉사일 것이다.

형식적인 봉사는 자신을 나타내고 생색내기 위한 봉사인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다. 참된 봉사는 계산적이지 않으며 사업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아가페 정신에 입각한 봉사활동을 말한다. 필요할 때 서로 돕는 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그 사회의 주요 기능이였다.

비록 도움의 형태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문화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원조하기 위한 공식화된 방법들을 갖고 있다. 사회봉사의 초점은 인간의 영적,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관계적 필요에 있다.

또한 봉사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귀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엮어가는 활동이다. 그리고 만남 안에서 나눔의 활동이며 한 인간으로서 삶에 가치를 부여한 활동이다. 봉사를 통하여 개인의 경험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사회에 공헌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보람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디아코니아 봉사자들이 갖추어야할 품격을 보도록 한다.

첫째, 미소(Smile)

미소 짓고 명랑한 얼굴을 할 때 행복이 솟아난다. 미소는 인간관계의 긍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배려이다. 만물 중에서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인간뿐 일 것이다. 상대방에게 유쾌한 웃음과 미소는 소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옛 속담에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 라는 속담이 있다. 웃음과 미소가 많은 집안에 복이 온다는 말이다. 미소와

웃음은 당사자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영양을 주는 것이다. 밝은 미소와 웃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둘째, 책임(responsibility)

사회구성원 각자가 책임감이 있고 이것을 중요시 한다면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고 서로를 위하며 화합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책임감은 사람이 스스로의 행위에 관하여 타인에게 평가를 받고, 실행되어진 현상에 대하여 자책이든 남으로부터의 비난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도덕상의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한다.

봉사란 인간관계를 회복하며 서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책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입장에 맞추어 말을 바꾸고 합리화하여 회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때론 책임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참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생활환경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셋째, 존중(Respect)

존중이란 나보다 남을 높여서 대하는 것이다. 자기 속에도 존중이 있고 타인 속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회구성원 모두에 대해 인간적 실재를 인정하고 경의를 표시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초대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상대가 원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책이나 글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지 말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 타인의 공간을 존중하라
-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라
-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라

더 나아가 사회를 존중하고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필요 하다.

넷째, 건강(Health)

육체의 건강을 도외시하면 사람들에게 대한 봉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끊임없이 자신을 관리하지 않고는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다.

건강은 서로 간에 사랑의 표시이다. (Total Health)건강은 신체적 건강, 정서적 건강, 사회적 건강 모두를 말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하기에 최대한의 자신에게 신념을 통한 건강증진에 대한 실천이 필요하다.

신체적 건강은 건강한 몸, 균형 잡힌 체격, 강인한 체력, 유연한 신체기능을 말한다. 건강한 먹거리를 통한 균형 잡힌 영양관리와 운동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은 필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고 한다. 운동은 시간을 내어서하는 것이지 시간이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정서적 건강은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말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강조하는 정신건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일과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 둘째, 유머와 유쾌함이 있는 사람
- 셋째, 극단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자기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
- 넷째, 자기 통찰력이 있고 사회에 적절한 반응이 있는 사람
- 다섯째, 인내력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사회적 건강은 사회적 참여, 이웃끼리의 협동, 체계인정, 질서의식, 민주적 방식의 합의를 인정하고 모든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의식을 말 할 수 있다.

다섯째, 인내(Patience)

현대사회는 기다림이 부족한 사회, 인내가 부족하여 화를 잘 내는 사회적 현상을 볼 수 있다. 한계를 뛰어 넘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어떻게 불쾌한 마음을 극복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겸허한 태도로 극복해야 한다.

첫째, 자신의 단점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한다고 감정그대로를 표현할 수는 없으며 지적하는 쪽이 친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 모습에 대한 지금의 상황이고 피할 수 없는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둘째, 냉정한 분별력과 판단으로 극복해야 한다. 만약 내 자신이 지나친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신의 자만의 평가를 하향으로 조정하고 겸손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셋째, 용서에 의한 극복이다.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과 억울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유일한 대처는 선으로 대하고 분노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참된 봉사가 있어야 한다. 과시욕에 의한 봉사, 생색내기 봉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이미지를 남겨놓아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김인숙, 인성의 길에 서다 (서울 : 서울인성교육실천연합, 2014).
 박귀영외, 노인복지론(경기: 양서원 2010).
 이만복, 효인성교육론(강원: CC-LAND, 2016).

김성철 교수의 '교회봉사자의 섬김의 자세와 리더십의 변화'

김한호(서울장신대학교, 춘천동부교회 담임목사)

먼저 김성철 교수님의 논문을 읽으며 한국교회와 사회에 관한 깊은 통찰과 함께 한국교회의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리더십의 관점으로 교회봉사자의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겪고 있는 개신교 인구의 감소와, 교회의 성장둔화, 그리고 대사회적 이미지 재고를 위한 돌파구가 절실히 요청되는 현실 가운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봉사자의 섬김의 자세와 리더십에 관한 고찰은 시의 적절한 연구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서두에 언급하고 있듯이 현재 한국교회는 지역사회 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기대치를 만족하기 위한 사회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개념과 자원봉사자 개발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은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는 데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Ⅱ장에는 자원봉사자의 섬김의 자세를 통해 섬김의 분야별, 주체별 교회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신 후에 섬김의 리더십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 하셨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의 구체적인 항목으로서 수평적 대화, 공감하는 커뮤니케이션 등과 함께 서번트 리더십을 비롯한 여러 리더십 이론과 함께 성경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을 비교하였습니다.

제Ⅲ장 리더십의 변화에 대한 최근의 동향을 소개하시면서 교회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리더십의 바람직한 예로 구세군의 봉사 윤리와 교회의 여성 지도력(리더십)을 새롭게 조명하여 주셨는데, 이들의 리더십을 오늘 한국교회의 리더십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제Ⅳ장 교회봉사자의 사명은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저자의 논지와 주장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교회의 오늘날 위기를 목회자의 리더십 상실과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과 물량주의적인 교회성장 등으로 진단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교회갱신 프로그램의 개발을 역설하셨고, 그 대안으로 '디아코니아'(봉사)를 제시하신

점은 필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그동안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로서 지역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천자’로서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봉사자로서의 영향력은 미흡했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나아가, 디아코니아를 교회의 본질로서 이해하지 않고 교회의 내적인 예배와 전도 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 왔다는 문제제기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문제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디아코니아 사역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실제적인 통로이며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한국교회가 소홀히 여겼던 교회 밖 봉사자 교육을 마련하고 교회의 섬김 사역 중에 지역사회 봉사과정을 두어 교회 내, 교회 밖을 균형 잡히게 봉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자와 실천자를 세우자는 교수님의 의견에는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그러한 목회를 현장에서 시도하고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V장 나가는 글에서 교수님은 한국교회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봉사에 발맞춰 교회 자원봉사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대한 제언으로 교회 간 상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타 종교와의 네트워크, 시민사회조직과의 네트워크, 정부의 제도적 지원 등을 제시하시며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봉사가 확대된다면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회복될 것이며, 교회봉사자들의 섬김의 리더십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디아코니아 연구자와 목회자로서 아래와 같이 발전적인 토론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저자는 자원봉사자의 섬김의 자세로서 리더십에 관한 내용을 많은 분량을 할애 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리더십과 관련한 몇 가지 이론과 방법론들이 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성경적인 리더십의 회복이 한국교회의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데 오히려 논문의 많은 분량을 서번트 리더십을 비롯한 리더십 이론에 할애 하였습니다. 교회봉사자에게 필요한 성경적인 리더십은 어떠한 것인지 좀 더 보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한국교회의 새로운 리더십의 대안으로서 구세군의 봉사윤리와 기독교 여성 지도력을 언급하신 것은 신선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제시하신 내용이 원론적인 면에 치우쳐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대안으로 두 부류를 제시하신 저자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저자가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디아코니아’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교회의 본질이라기

보다는 교회안의 봉사로 머물렀다는 지적과 디아코니아 사역이 교회와 지역사회의 의미 있고 실제적인 섬김의 통로가 된다는 점은 지지하며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단지, 결론 부분에서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서 타 종교와의 네트워크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접근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언 점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후학들을 양성하시며 헌신하시는 김 성철 교수님의 연구에 감사드리며 논찬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거버넌스 모색

- 기독교 자원봉사활동,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

이승훈 교수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목 차

- I. 현대 사회의 문제와 자원봉사활동
- II. 자원봉사활동과 기독교의 의미체계
- III. 기독교자원봉사활동의 목표와 방향
- IV. 어떻게 할 것인가?

I. 현대 사회의 문제와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은 시민 사회의 성숙을 측정하는 중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일찍이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탱시키는 중요한 자원 가운데 하나로 시민들의 자원 결사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그의 이론적 관심을 뒤잇고 있는 퍼트남은 현대 미국의 자원 활동의 감소를 미국의 공공성이 쇠퇴하고 있는 징후로 해석한다. 그러한 해석에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자원 활동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토대이며, 동시에 민주적인 덕성을 함양하는 학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흐름은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개인의 자율성이 절대화되면서 타자와 공유하며 협력하는 공공 영역이 위협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인과 사회 차원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불안정성’, ‘불확실성’, ‘불안’ 등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²⁸⁾ 바우만은 이러한 상황이 인간 주체의 자유가 야기한 불가피한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인간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제공해주고, 또 세상을 예측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던 과거의 제도, 전통과 관습, 그리고 유대 관계들이 다 녹아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고체와 달리 유체는 일정한 형태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대 사회도 마치 액체와 같이 “선택하고 행동할

28) 이 승훈, “현대 사회에서 연대적 주체의 모색,” 『사회사상과 문화』 18권 2호(2015a년), 1장을 참고 할 것. 아래는 1장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수정, 요약한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혐의를 (옳게 혹은 그릇되게) 받고 있는 족쇄와 사슬이 근본적으로 녹아”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가 현대 사회를 ‘액체 근대’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자유화, 유연화, 유동성, 속도 등은 이런 ‘액체 근대’를 특징짓는 표현들이다.²⁹⁾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든스와 올리히 벡은 이를 ‘성찰적 근대’라고 부른다. 이는 “사회가 근대화 될수록 행위자(주체)는 자기 존재의 사회적 조건을 더 많이 반성하고 그리하여 그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⁰⁾ 이런 시대에 삶의 더 많은 부분들은 개인화되고, 또 개인화될수록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증대되어가기 마련이다. 개인의 존재론적 안정감은 일상의 관행을 통해 유지되는데, 그 일상의 관행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삶은 혼돈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개인화 과정이 낳는 개인의 원자화 또는 고립화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들은 각각의 개인들이 고립되어 있으며 서로 공유하는 공동 세계를 상실한 사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공공 영역의 위축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와 전체주의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이러한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는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와 개인의 안전감,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한 대안으로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의 토대로서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미덕, 곧 자발성, 공공성, 그리고 무보수성 등은 종교를 그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전체의 공공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은 그 성격상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벨라는 미국 사회의 시민 문화를 분석하면서, 미국 공공성의 뿌리에는 성서적 개인주의가 그 바탕으로 깔려있음을 밝히고 있다.³¹⁾ 우리 사회에서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구학적 변수를 찾아보면, 종교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원봉사라는 활동이 그 성격상 초월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심의 크기와 달리, 종교와 자원봉사활동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전체 자원봉사활동에서 종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지, 종교인들의 자원봉사 중 종교 영역 외부에서 이뤄지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자원봉사의 의미와 참여를 설명하는 이들의 문화적 언어는 무엇인지, 종교성을 매개로 자원봉사활동과 민주주의적 가치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등 본격적으로 분석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물론 글쓴이가 이 짧은 발제 형식의 글에서 앞서 제기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내놓을 수도, 또 그런 능력도 없다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글은 기독교와 자원봉사활동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원론적인 물음과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의 간략한 개념을 살펴보고, 그것의 종교적 바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현대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 공공 활동에의 참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공공성과 연대성을 두 가치를 자원봉사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가치와 기독교의 의미 체계 및 전통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연대를 실

29) 지그문트 바우만, 『액체근대』(이 일수 옮김)(서울: 도서출판 강, 2010), 13쪽.

30) 올리히 벡, 『산업사회의 자기해체와 위험자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임 현진/정 일준 편역, 『성찰적 근대』(서울: 한울, 1998), 241쪽.

31) Robert Bellah 외,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를 볼 것.

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시민 사회와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바람직한 자원봉사활동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은 글쓴이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일 뿐 아니라, 이 글의 범위도 벗어나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다만 어떤 방향에서 공공 활동이 이뤄져야 할지를 글쓴이의 이론적 관심에서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자원봉사활동과 기독교의 의미 체계

이 단락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간략한 개념 규정과 그것이 종교, 특히 기독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자원봉사활동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규정은 사회나 시대에 따라, 또는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 다양한 논의들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의 광범위한 공동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보통 자원봉사활동이란 “강제가 아닌 자발적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 이외의 개인이나 공동체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재능, 에너지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³²⁾ 이 규정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의 특징은 ‘자발성,’ ‘무보수성,’ 그리고 ‘공공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제가 아닌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한다는 점에서 ‘자발성’에 의한 활동이고, 비록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보수성’의 특징을 가지며, 나아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개인이나 전체 공동체의 선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기부나 봉사는 물론이고, 시민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정치 참여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의 개념이 될 것이다.

이런 특징의 자원봉사활동은 그 본질상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종교란 본래 삶의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줄 수 있는 ‘의미체계’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사회학자 로버트 벨라는 종교란 “인간을 자기 존재의 궁극적인 조건에 관계지우는 일련의 상징적 형식과 행위”라고 정의한 바 있다.³³⁾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신의 궁극적인 조건, 곧 탄생과 죽음, 사랑과 노동, 가족과 이웃됨 등에 관한 의미와 가치를 해석하는 일련의 상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그 의미와 가치에 기초하여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다. 종교는 궁극적인 차원에서 그 의미체계와 상징체계를 제공해주는 바탕이 된다는 설명이다. 자원봉사활동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자신의 좁은 이해관계를 상대화하면서, 자발적으로 공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 바탕에 종교적 차원의 의미체계를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연구와 조사 자료들도 존재한다. 비록 미국의 사례들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 곧 알렉스 드 토크빌, 로버트 벨라, 로버트 퍼트넘, 로버트 우스노우 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문화적 바탕으로 기독교와 교회의 소집단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통계에서도 2005년 현재 전체 자원봉사활동 인구 가운데 68.5%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⁴⁾ 이러한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자원봉사

32) 채 진원,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 자원봉사활동의 민주적 가치와 정치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1권 3호(2011년), 89쪽.

33) 로버트 벨라, 『사회 변동의 상징구조』(박 영신 옮김)(서울: 삼영사, 1988), 30쪽.

34) 채 진원, 『유클, 95쪽.』

활동과 종교 간에는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의미 체계는 자원봉사활동의 중요한 자원이었을 뿐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의 의미체계는 더 이상 그러한 에너지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이 결코 적지 않다고 하여도, 본래 자원봉사가 가지고 있던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에 가졌던 그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와 자원봉사활동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과제는 바로 기독교의 이러한 변혁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인용하는 글은 바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한국 교회의 과제를 잘 포착하고 있다. 직접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교회는 이러한 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는, 아니 범세계 공동체에 이르는 모든 수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가짐을 자극하여 자발성과 책임성을 부추기며 이를 일관되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단위가 되어 지역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 거기에 교인들이 열성을 다해 참여해야 한다. 이들 가운데는 교회 단위로 교회의 이름을 걸고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일반 자원 단체를 돕고 시민운동 단체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시민운동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보고 간사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시민 사회의 일꾼들이다.

오늘날 이러한 참여의 능력을 교회가 복돋고 있으며,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른 시민 사회 조직체와도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교회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차원의 과제들이 엮여 질 때 비로소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모인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서있게 될 것이며, 나아가 시민 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³⁵⁾

길게 인용한 위 글에는 현대 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한국 기독교의 과제가 잘 요약되어 있다. 기독교 신앙은 그 근본에서부터 자원봉사활동의 특성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일상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점이 그렇다. 그러한 참여는 당연히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은 자신의 이해관계나 친밀성을 넘어서는, 공공의 관점에서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 자신의 좁은 관심과 이해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저항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공선의 실현을 위한 교회의 노력은, 같은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 밖의 다른 조직체들과 연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물론 기독교가 곧 민주주의는 아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는 분명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단락에서는 한국 교회의 과제를 공공성과 연대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5) 박 영신, "종교, 삶의 문화, 그리고 시민 사회," 『한국의 시민과 시민 사회』(박 영신/이 승훈 엮음)(서울: 북코리아, 2010), 110-111쪽.

III. 기독교 자원봉사활동의 목표와 방향

앞서 보았던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은 분명 넓은 의미의 자원봉사 형태로 드러나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수준의 자기 만족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교회의 자원봉사활동은 참여는 자원봉사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기독교 신앙의 실천이어야 한다. 그와 같은 목표는 다양한 차원에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봉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자원봉사를 노동문제를 보면서 현재 경제체제, 나아가 삶의 방식을 변혁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³⁶⁾ 하지만 이 글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들 관점에서 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기독교인들과 한국 교회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어떤 목표와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등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 단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 자원봉사활동의 목표와 방향은 크게 '공공성'과 '연대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요약할 수 있다. 공공성과 연대성은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들이며, 기독교 신앙이 추구해야 하는 민주적 가치들이기도 하다. 모두들 동의하는 바와 같이, 기독교 자원봉사활동은 교회라는 작은 테두리에 제한될 수 없다. 그것은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 현실의 일상생활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두 가지 과제를 여기에서는 '공공성'과 '연대성'으로 요약하고 있다. '공공성'이 타자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연대성'은 타자와 협력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의 향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의 자원봉사활동은 이러한 가치들을 지향해야 한다. 교회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책임감(공공성)을 가져야 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에 앞장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연대성)이다. 먼저 이 두 가지 과제를 논의한 다음, 이어지는 단락에서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글쓴이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한다.

1. 공공성 향상

기독교 자원봉사활동이 지향해야 하는 첫 번째 가치는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공 의식이 있어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추구해야 할 가치 또한 공공 의식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어야, 자원봉사활동은 참여자와 수혜자를 넘어서 지역과 한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많은 이들이 공공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 사

36) 보기를 들어, 광 형모는 자원봉사를 가사노동이나 돌봄 등과 같은 무급노동의 범주로 파악하면서, 무급노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노동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의 일상이 유급 장시간 노동 중심에서 적정노동과 무급노동으로 옮겨야"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낯선 '비물질적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비물질적 삶이란 물질만능주의, 배금주의, 경쟁제일주의, 성장지상주의, 권력숭배, 등급주의,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인본주의, 공동체적 관계, 생태적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 형모, "노동의 눈으로 본 자원봉사," 2016. 7. 18-19쪽을 볼 것.

회에서 공공성 관련 논쟁이 본격화된 계기는 정치적 민주화와 외환위기로부터 비롯된 신자유주의 등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민주화는 독재 시절 억눌려 왔던 개인의 자유와 권리 주장이 공공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게 된 계기였다. 외환위기는 부정부패와 비효율을 척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시장 논리에 귀속시키는 출발이 되었다. 그 결과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경쟁이 극단화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전체의 통합과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개인의 이해관계, 권리주장, 가치가 절대화되면, 나 아닌 타자와 주변 환경은 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차이가 쉽게 극단적 갈등으로 전환되며,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이 파괴되어 인간 소외 현상이 만연하게 된다. 공공성의 이름으로 개인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상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공공 영역은 극심한 경쟁과 갈등만이 존재하는 정글처럼 변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원봉사활동 등과 같은 공공 활동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은 한 사회의 공공 의식 형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자원봉사 등과 같이 사회의 공공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타자의 입장을 보고 듣는 기회를 통하여, '확장된 심성'(enlarged mentality)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한다.³⁷⁾ 한나 아렌트는 '확장된 심성'이라는 개념을 칸트로부터 따오고 있는데, 그 요점은 판단력이란 타인들과의 잠재된 합의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정신 과정은 나와 나 자신 사이의 대화, 곧 순수한 이성의 작용이 아니라,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타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전제한다. 올바른 판단이란 자신이 상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은 물론 한 개인의 정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넓어지게 되면 정신 속에서의 이 과정도 가속화된다. 잠정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할 타인들의 범위가 확장되면,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공공의 관점에서 자신을 상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 관점, 이해관계 등을 타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공공 영역에의 참여가 공공성의 학습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학교가 된다고 주장한 이유이다.

사회 자본에 관한 최근의 논의도 비슷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 활동에의 참여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참여자의 관심 영역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뿐 아니라, "결사체에 의해 주관되는 다양한 행사를 조직화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관련된 의사소통과 의사 결정 기술을 연마"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과 "상호 접촉하고 협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과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관용적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³⁸⁾ 로버트 우스노우 또한 공공 활동 참여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 교섭을 증진시켜 신뢰와 호혜성과 같은 협동에 필요한 규범과 가치를 학습하게 된다고 주장한다.³⁹⁾

공공 활동의 내용이나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다.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공공 활동에의 참여는 참여자들이 인식을 확장시켜 공공성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나 이해관계를 상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준다는 것이다. 곧 공공성 형성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자원봉사에 관한 한국 교회의 과제도 이러한 공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성 인식이야말로 지역과 공동체를 위한 참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의 의미체계는 이러한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 공공성이란 사실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이다. 각각의 차원들은 서로 모순된 요구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⁴⁰⁾ 이를 '공공성의 딜레마'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보다는 공공선이나 공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성은 철저하게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공공성은 집단의 목표를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는 독재의 다른 이름에 불과할 것이다. 여기에서 '공공성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개인들의 자율적인 참여의 결과가 언제나 공공선을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집단 이기주의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 님비(NIMBY) 현상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대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라는 의미로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개인의 자율성과 평등이라는 근본 가치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국익의 이름으로 소수자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 역사는 공공성의 이러한 폐해의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공공성 딜레마'를 고전 사회학자 뒤르케임은, 조금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 자유의 값어치는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데 있다. 만약 그 자유가 자유 그 자체를 넘어서는 어떤 다른 목적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쓸모없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위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싸움의 수단이 되는 무기이다"⁴¹⁾ 따라서 공공성의 과제는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요구를 모두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그 결과가 전체로서의 공공성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독교 자원봉사활동은 '공공성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으며, 공공성 형성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라디아서 5장 13절). 자유롭게 행할 권리가 있으나,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의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이다. 앞서 말한 공공성 딜레마에 대한 정답과 같은 말씀이다. 미국의 시민 사회에 관한 논의에서 언제나 기독교와 교회가 등장하는 것은 서구의 역사에서 공공성 형성에 기독교가 했던 역할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공공성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⁴²⁾ 이처럼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교회는 공공성의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고, 또 딜레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왜 그렇지 못한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글의 뒷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여기서는 먼저 기독교 자원봉사활동의 두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연대성'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37) 한나 아렌트, 「칸트의 정치철학 강의」(김 선욱 옮김)(서울: 푸른숲, 2002), 143쪽.

38) 유 재원, 「사회 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권 3호(2000년), 247-248쪽.

39) 로버트 우스노우, 「기독교와 시민 사회」(정 재영/이 승훈 옮김)(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72쪽.

40) 공공성 딜레마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이 승훈, 「근대와 공공성 딜레마」, 「한국의 시민과 시민 사회」(박 영신/이 승훈 엮음)(서울: 북코리아, 2010)을 참고할 것. 아래의 내용은 이 논문의 일부를 요약하고 보완한 것이다.

41) 에밀 뒤르케임, 「개인주의와 지성인」 박 영신 엮음, 「변동의 사회학」(서울: 학문과사상사, 1980), 159쪽.

42) 이 승훈, 「시민사회 사상의 역사와 딜레마」, 조 성돈/정 재영 엮음,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서울: 에영 커뮤니케이션, 2008), 68쪽.

2. 연대의 형성

자원봉사와 관련된 한국 교회의 두 번째 과제는 연대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연대성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슈이고, 자원봉사활동이 연대 의식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용어로서 연대란 “행위자들이 함께함”이라는 뜻을 지닌다. 여기에서 ‘함께함’이란 단순히 시공간을 함께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대는 생각을 함께 하는 것이고, 나아가 감정이나 의지를 함께 하는 것이며, 때때로 수고와 희생까지 함께 하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⁴³⁾ 르웰린-데이비스(Llewelyn-Davies)는 연대를 정의하기를, “연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특정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원칙에 대하여 함께 동의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일종의 상호 부조나 지원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⁴⁾ 현대 사회에서 연대의 문제가 특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다원주의라는 시대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오늘날 ‘차이’와 ‘다름’은 존중받는, 또 받아야 하는 하나의 가치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사회의 특징을 ‘다원주의’라고 규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다원주의’는 차이나 다름에 대한 단순한 용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여러 생각이나 삶의 방식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적극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⁴⁵⁾ 이러한 주장은 “삶의 방식은 자유로이 선택된 것일 경우에만 가치를 갖는다는 믿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곧 개인이 선택한 자율적 삶의 방식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이상이 다원주의에 깔려있는 것이다.⁴⁶⁾

다원주의 시대의 연대의 문제는 공공성에서와 같이 서로 상충되는 요구에 해결해야 한다. ‘차이’와 ‘다름’을 존중해야 하면서, 동시에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대 사회에 요구되는 연대의 형태는 동일성에 근거한 연대가 아니라 차이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연대이다. 지구화, 다문화, 정보화 등이 낳고 있는 현대 사회의 상황은 우리와 다른 타자와의 만남과 상호교섭을 일상화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연대 이념의 핵심은 타자에 대한 책임의 전개와 수용”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⁴⁷⁾ 이처럼 연대성 형성은 차이와 협력 둘 모두를 필요로 한다. 서로의 차이를 같은 가치로 환원시키는 ‘차이의 동일성’도, 또한 타자에 대한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차이의 공존’이라는 논리도, 모두 현대 사회의 연대성 과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전자가 연대를 위하여 차이를 포기한 선택이라면, 후자는 차이를 위해 연대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이를 존중하면서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글쓴이는 다른 곳에서 ‘동감’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다.⁴⁸⁾ 동감은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연대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동감은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의 자원봉사활동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된다. 동감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생물학자들이 발견한 ‘거울신경세포’의 존재

는 인간의 공감적 반응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⁹⁾ 하지만 동감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능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기독교의 신앙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독교 전통 가운데는 ‘환대’에 관한 풍부한 이야기들이 전해내려 온다. ‘환대’(hospitality)는 보통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여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을 의미하는 말이다.⁵⁰⁾ 구약의 전통 속에는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가르침이 여러 번 나온다.⁵¹⁾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레 19:33-34) 신학자 브렌던 바이른(Brendan Byrne)은 ‘환대’가 누가복음 신학을 이해하는 결정적 용어라고 주장한다. 누가복음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환대와 그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다양하게 나타내는 복음서라는 것이다.⁵²⁾ 성서와 기독교에서 나오는 수많은 환대의 이야기들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푼 환대를 닮은 자들, 타자들과 나누는 것”에 대한 것이다.⁵³⁾ 이집트에서 이방인이었고, 광야에서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느님이 환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소외된 자와 주변인들을 환대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설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환대’는 주변부적 삶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곧 환대를 받아 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이고, 동시에 소외되고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레터 러셀은 그의 책 「공정한 환대」에서 “공정한 환대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쪽 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하느님의 행위에 참여하기 위해 차이를 넘어서 하느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⁵⁴⁾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환대는 정의롭고 평등한 삶을 위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다. 환대는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는 동감과 다르지 않은 정신이다. 타자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정의와 연대를 실현하려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이런 전통은 나와 다른 타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전제가 된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성을 위한 공동의 협력과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한다. 이는 기독교 자원봉사활동이 ‘연대성’ 형성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이자, 동시에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43) 강 수택, “사회적 연대의 유형과 시민문화,” 『사회이론』 29호, 247쪽.

44) Graham Crow, Social Solidities: Theories, Identities and Social Change(Open University Press, 2002), 6쪽; 이 승훈, “동감의 조건과 그 구성: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 『공공사회연구』 제5권 1호(2015b년), 204쪽에서 다시 따옴. 아래 연대성과 관련된 내용은 이 승훈, 『릿글』(2015b)을 요약, 발췌한 것이다.

45) 로버트 우스노우, 『릿글』, 162쪽.

46) 황 경식, “대화와 관용, 그 인식적·윤리적 근거,” 『크리스찬 아카데미(역음)』, 『대화의 철학』(서울: 서광사, 1992), 339쪽.

47) 최 성환, “철학적 문제로서의 연대,” 『철학탐구』 27호, 148쪽.

48) ‘동감’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글쓴이의 자세한 논의를 보기 위해서는, 이 승훈, “다양성, 동감, 연대성,” 『동양사회사상』 제25집(2012년)를 볼 것.

49) 제레미 리프킨, 『공감의 시대』(이경남 옮김)(서울: 민음사, 2011), 22-29쪽.

50) 네이버 국어사전

51) 손 운산, “낯선 이를 환대하라,” 『기독교사상』(2012. 4.), 268쪽.

52) 김 성희, “죄 많은 여인의 환대(눅 7:36-8:3),” 『신약논단』 19권 4호(2012 겨울), 1044쪽.

53) 정 애성, “공정한 환대 - 환대에 대한 주변부의 상상력,” 『기독교사상』(2013. 3.), 110쪽.

54) 레터 러셀, 『공정한 환대』(여금현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56쪽; 정 애성, 『릿글』, 111쪽에서 다시 따옴.

IV. 어떻게 할 것인가?

자원봉사활동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기독교적인 활동인 것은 분명하다. 자원봉사활동의 적지 않은 비중이 기독교 단체를 포함한,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많다. 봉사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에서부터, 시장이나 행정 기관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일,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역할까지, 자원봉사활동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두 가지의 과제, 곧 공공성 향상과 타자와의 연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다루었다.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 주장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 의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다양성이 증대되고 서로 간의 차이를 존중할 것이 요구되는 다원주의 시대에, 자원봉사의 경험은 차이를 바탕으로 한 연대 형성의 가능성을 도와주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한국 교회 역시 현대 사회의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신앙과 전통이 공공성과 연대성 형성의 유일한 근원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자원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한국 교회가 시민 사회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에의 요구는 글쓰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자원봉사활동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닐뿐더러, 자원봉사의 경험도 미천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다만 시민 사회와 사회운동의 연구자로서 관찰하고 생각한 것들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글쓰기는 이미 다른 곳에서 자원결사체에의 참여 경험이 어떻게 시민 의식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한 바가 있다.⁵⁵⁾ 사사로운 개인들은 자원 결사체 참여를 통하여 시민으로서의 공공성과 연대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그것은 자원 결사체 참여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들 때문이다. 첫째는 나와 다른 타자들과의 상호교섭이 증대하게 됨으로써, 타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대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습과정과 일상의 토론을 통하여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 의식을 키우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형성된 공공 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타자들에 대한 이해와 연대 의식을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락에서도 이러한 기제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아래의 논의들은 편의상 나누어 논의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활동의 다양한 측면들이라고 할 수 있다.

55) 이 승훈, “한국 사회의 ‘시민됨’ 형성 과정 : 자원 결사체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2002년)

1. 공공 활동에의 참여 기회 제공하기⁵⁶⁾

기독교 자원봉사활동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과 공동체 전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까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곧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긍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동어반복이나 말장난이 아니다. 공공 활동은 참여의 경험을 통하여 더욱 활성화되고 풍부해진다는 의미이다. 한국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밖의 타자들을 위한, 또 그들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성 향상’과 ‘연대성 형성’을 위한 출발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공론장과 시민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단지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거나 또는 어떤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시민으로서의 미덕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자원봉사활동 등과 같이 공공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일상의 울타리를 벗어나 나와 다른 타자와 만나고 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나아가 그런 경험을 통하여 사람들은 타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성찰하고 상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연대의 정신과 방식들을 배우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자나 프래그머티스들은 공공 활동의 참여가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시민들이 공공의 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그런 기회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⁵⁷⁾ 페이트만의 표현대로 “참여함으로써 참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⁵⁸⁾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 자신을 회생하고 봉사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전통을 확장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곧 ‘공공성’과 ‘연대성’ 의식으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밖의 타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식의 확장이 일어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타자와 협력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물론 공공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공공성 향상이나 연대의 형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타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을 상대화하거나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기 보다, 오히려 자신이 기존에 가졌던 입장이나 가치 판단을 더 강화시키게 될 수도 있다. 선스타인은 이를 ‘집단 극단화’(group polarization)라고 한다.⁵⁹⁾ 그에 따르면, 비슷한 가치를 가진 동질적인 사람들과 빈번한 상호교섭은 ‘집단 극단화’ 현상을 발생시키기 쉽다고 한다.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의견만을 듣게 되면, 기존의 입장이나 태도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 활동을 통한 타자와의 만남이 동감이나 공공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와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교섭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⁶⁰⁾ 자원결사체 내부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외부적으로 서로 다른 관점과 가치를 가진 집단 간의 상호교섭이 활발할 때, 공공 활동

56) 이 단락의 내용은 이 승훈, 윗글(2015b), 13-15쪽을 수정, 요약한 것이다.

57) David W. Woods, “George Herbert Mead on the Social Bases of Democracy,” F. Thomas Burke/Krzysztof Piotr Skowronski(역음), George Herbert Mead in the Twenty-first Century(Lexington Books, 2013), 208-209쪽.

58) Carole Pateman,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105쪽.

59) Cass R. Sunstein, “The Law of Group Polarization,” James S. Fishkin and Peter Laslett(역음), Debating Deliberative Democracy(Blackwell, 2003), 81쪽.

60) 윗글, 94쪽.

이 공공성과 동감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독교 자원봉사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교회 안에 국한된 자원봉사활동은 동질적인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교섭을 증대시켜, 오히려 교회 밖의 타자와 공동체와의 구분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는 ‘공공성’과 ‘연대성’에 역행하는 현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밖의 다양한 사람이나 집단과의 상호교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공공 활동의 경험은 또한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낳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또 다시 참여를 낳는 것이다. 아렌트는 이를 ‘공공의 행복’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은 공적 생활에 참여할 때,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만 머무르고 말았을 인간 경험의 한 차원을 자신에게 개방하는 것이며 이 차원은 완전한 ‘행복’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⁶¹⁾ 행복을 사랑, 우정, 가족애 등 사사로운 친밀감에서 찾는 현대인들에게는 낯선 표현이지만 공공 영역 차원에서의 행복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주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들의 인터뷰를 보면 공공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공공의 행복’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주부들이 지역 운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가족 울타리에 매몰되어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공 활동을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며 이들의 인정을 받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이 지역 운동에 계속 참여하게 하는 주요 동기라는 것이다.⁶²⁾

자원봉사활동이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를 통하여 나와 다른 다양한 타자들과 만나는 기회를 가지고, 또 공공 활동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공공의 행복’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 교회 차원에서 더 많은 신자들이 체계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이유이다.

2. 인식의 확장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하기

단순히 참여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공공성 확장’과 ‘연대 형성’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타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선교 차원에서 복음 전파를 위한 자기 희생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자신이 속한 종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타자와의 상호작용이라는 경험이 앞서 말한 ‘공공성’이나 ‘연대성’으로까지 확장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종교들이 교리 차원에서 자비와 섬김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만, 그런 종교적 가르침이 “사회적 책임성의 가치로 연계되지 않으면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적 참여로 이어지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⁶³⁾ 여기에서 사회적 책임성이란 “타인의 복지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타자를 위한 자

원봉사의 경험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체성 변화를 위해서는 타자들과의 만남이나 낯선 경험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사회운동 참여 과정을 연구한 프레이밍 이론이 이러한 과정을 잘 설명해준다. 인간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틀, 곧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간다. 인간의 모든 판단과 활동은 자신의 프레임에 기초한 이러한 현실 인식을 기초로 일어난다.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경험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운동은 지지자와 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배적 프레임에 도전할 수 있는 대안적 프레임을 구체화하여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타자와의 만남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험을 ‘공공성’이나 ‘연대성’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인식의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프레임 정렬’이라고 한다. ‘프레임 정렬’을 통해 “사회운동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잠재적 참여자, 지지자들의 공감과 동의를 획득하여 행동에 동참하거나 지원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⁴⁾ 현실을 인식하는 서로 다른 틀이 연결되도록 이어주거나, 구체적인 쟁점이나 문제, 사건들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경험을 하거나, 기존 구성원들의 인식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의 프레임을 확장하는 것 등이 ‘프레임 정렬’의 사례들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이처럼 참여자들의 인식틀을 연결하고, 확장하고, 대체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습관’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하고 행위하는 습관화된 루트, 곧 경로의존성을 해체하는 것이다. 사사로운 개인이 공공의 시민이 된다는 것, 곧 새롭게 프레임 정렬이 일어나는 것은 개중 수준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 시작은 일상에서의 습관을 깨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프래그머티스트인 듀이의 행위 이론은 이 과정을 잘 분석해주고 있다.⁶⁵⁾ 그는 인간의 행위를 ‘습관’(habits), ‘충동’(impulse) 그리고 ‘지성’(intelligence)이라는 세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습관에 근거하여 일어난다. 습관은 이전의 활동을 통해서 습득된 행위이기 때문에, 질서와 체계가 있으며 미래를 투사하고 예측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언제나 인간의 모든 충동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충동은 습관과 갈등 관계에 서게 되고, 자신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서의 충동은 생물학적인 본능이 아니라, 타인이나 새로운 환경과의 상호교섭을 통하여 발현되는 사회적인 요구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듀이의 이런 설명이 개인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지는 함의는 명백하다.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정체성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낯선 타자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겠지만, 여기에 더하여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 기존의 인식틀을 흔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아스는 트라우마의 경험이 새로운 가치를 수용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모든 부정의 경험이 새로운 가치를 낳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집단 차원의 트라우마는 일상의 습관에 큰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Joas, 2013). 정체성의 변화를 위해서 일부러 트라우마

61) 한나 아렌트, 『공화국의 위기』(김 동식 옮김)(서울: 두레, 1979), 246쪽.

62) 이 승훈, 『릿글』(2002), 90쪽.

63) 정 상원, “기독교인의 성장기 나눔교육경험과 종교성이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책임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48권(2015년), 99쪽.

64) 신 진옥, 『사회운동의 문화, 정체성, 프레이밍』, 김 동노(역음), 『한국 사회의 사회운동』(서울: 다산출판사, 2013), 81쪽.

65) 듀이의 행위 이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 승훈, 『민주주의와 시민 주체의 형성: 듀이의 정치 사상을 중심으로』, 『사회이론』 제43권(2013년)을 볼 것.

의 경험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긍정적 경험과 이를 통해 습관을 해체하는 새로운 교육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과 이에 대한 긍정적 해석의 프레임이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것은 여러 형태를 띠 수 있다. 나눔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나 간행물의 발간,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공식 교육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일상의 토론 맥락 형성하기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들의 인식과 정체성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을 해석해주는 공식 교육 기회와 더불어, 일상에서 이뤄지는 토론도 중요하다. 이를 일상의 토론 맥락 형성하기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일상적 토론은 자신의 가치와 좁은 이해관계를 상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인식과 정체성 변화의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과 인터뷰한 결과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인터뷰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들은 사사로운 관심에 갇힌 무기력한 개인들이 아니라, 공공 활동에 대한 관심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이웃이나 다른 소외 계층에 대한 단순한 관심과 배려 차원을 넘어서, 사회 차원의 공공성으로까지 인식이 확장되지 못했다.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한 주부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한다.⁶⁶⁾

노인복지관이다 보니깐요, 어른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나칠 것도 지금은 길을 가다가도 어른들을 비켜드린다거나, 운전하고 가다가도 길을 건너시는 것을 보면 기다려준다거나 그런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눈에 안들어왔거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번 주에 필요한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남에 대한 배려가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에서 경험하게 되는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태도는 봉사 대상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노인들이나 일반인으로까지 그 관심과 배려의 태도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이다. 이들의 인식은 소외 계층의 문제를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사회 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공공성 또는 시민 의식의 출발은 사적인 문제에 대한 공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문제를 사적 차원에서만 이해하게 되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기 힘들다. 사회 차원의 원인을 인식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변화를 위한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6) 윗글, 116쪽.

하지만 글쓴이가 인터뷰했던 자원봉사자들은 봉사 대상들에 대한 ‘시혜자-수혜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들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들이 이동권을 요구하며 벌이는 시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⁶⁷⁾ 또한 사회의 주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소외 계층 일반에 대한 사회 차원의 인식의 확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비해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의 형태로 나타난다.⁶⁸⁾

사적인 관심이 공적인 인식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일상의 토론을 통한 학습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고립된 개인은 어떤 문제의 원인을 자기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 개인이 어떤 네트워크에 잘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겪는 문제의 원인을 사회에서 찾게 되고, 더 나아가 공동 대응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네트워크 안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대화와 토론이 인식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로버트 우스노우 역시 다문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로서 다른 문화를 가진 타자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다문화 상황에 직면한 기독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이다.⁶⁹⁾ 첫째는 ‘정체성의 정치’의 전략이다. 이것은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여겨지는 가치나 이해관계에 대한 반작용으로, 교회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대응 방식이다. 이들은 다문화주의를 일종의 ‘적’으로 간주하는데, 기독교와 다른 가치들이 유입됨으로써, 일종의 상대주의로 인해 기독교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대응 방식은 ‘실용적 보편주의’의 태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문화와 가치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며, 각 다문화 집단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동의 토대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들에게 종교적 신념이란 일종의 종교 공용어로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있는 내용들이 빠져버리는 문제를 낳게 된다. 다문화 상황에 대한 ‘정체성 정치’의 전략이 벽돌과 같다면, ‘실용적 보편주의’의 태도는 스폰지에 해당한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벽돌은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반면 스폰지는 쉽게 흡수한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이들은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른 모든 것처럼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태도는 모두 한계가 있다. 첫 번째 전략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단절하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태도는 기독교 신앙의 특수성과 가치를 포기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스노우는 세 번째 전략으로 다문화 상황에서 기독교인의 역할은 시민 비평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평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들이 가치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다른 가치나 문화적 표현에 비해 뛰어난지 아닌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기독교인들 역시 다양한 집단들과 무엇이 바람직한 가치이며 정의인가를 대화하면서, 복잡한 다원주의 속에서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서로 다른 가치나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기꺼이 대화하고 더 많은 상호교섭을 해야 한다. 비평가는 자신의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다른 신앙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대화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비평적 대화에는 ‘지적 세련됨’(sophistica-

67) 이 승훈, 윗글(2002), 127쪽.

68) 윗글, 120쪽.

69) 로버트 우스노우, 윗글, 3장을 볼 것.

tion)이 요구된다. 보통 ‘지적 세련됨’이라고 하면 잘난 체, 현학적, 가식, 허풍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를 알고 있다는 자기 주장을, 다른 가치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비판적 논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대로 표현하자면, 일상에서 토론의 맥락을 형성하는 것이다. 비평가의 태도는 자신의 진리 주장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가치와 진리 주장과 대화하고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서 공공의 가치와 정의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기 때문이다.⁷⁰⁾ 자원봉사자들 역시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 공공 의식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지적 세련됨’을 갖춘 토론과 의사소통을 일상화할 수 있는 조건이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타자와 협력하는 연대 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일상 생활에서 공적 이슈에 대한 토론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는 힘들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 과정 가운데 봉사 대상자들이나 지역 사회와 관련된 공공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서 스스로의 인식을 확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작은 성공 이야기 만들기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공공성 향상과 연대의 형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람직한 지역과 공동체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뜻한다. 낯선 타자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며, 공공성의 관점에서 사사로운 이해 갈등이 논의되고 조절되는 시민 문화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는 너그러우면서, 외부의 타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한 우리의 (유사)가족주의, 연줄망 문화를 변혁하는 과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가족주의적 습관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고 습관을 대체할 새로운 공공성과 연대의 문화를 구성하는 일이다. 습관은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된 일종의 문화이다. 따라서 문화를 변혁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 여기에 특별한 비법이나 왕도가 있을 수 없다. 오직 오랜 시간동안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노력만이 필요하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행위나 현상을 판단할 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모든 문화는 자신이 전형으로 생각하는 ‘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예’에 의거하여 옳고 그름, 바람직함 등을 판단하게 된다고 한다.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어떤 행위가 옳기 있는 행위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 또는 평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일반적인 규칙들에서 도출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 사람은 옳기가 있다”고 말한다. 만약 그가 그리스인이라면, 그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아킬레우스의 예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줄임) ……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성 프란체스코나 나사렛 예수의 예가 있다. 판단은 그 예가 적절하게 선택되는 정도에 따라 예증적 타당성을 가진다.⁷¹⁾

70) 로버트 우스노우, *윗글*, 172쪽.

71)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김 선욱 옮김)(서울: 푸른숲, 2002), 157쪽.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습관을 깬다는 것은 새로운 ‘예’를 만드는 일이다. 기존의 익숙한 사고와 삶의 방식에 도전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도전이 기존의습관에 균열을 넣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의 방식을 정당화하게 될 때, 변화는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이러한 일의 시작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운동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존의 습관을 벗어난 대안의 삶의 양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적인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누리는 ‘공공의 행복’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성공적일 때 새로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작은 실천의 성공적인 이야기가 낳은 사회 변혁의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그러한 행위가 낳는 변혁의 가능성을 철학의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변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대안적인 다른 삶의 방식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작은 성공의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기존의 습관은 균열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희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곽 형모는 자원봉사의 교육적 가치이자 자원봉사교육의 목표는 ‘비물질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곧 “물질만능주의, 배금주의, 경쟁제일주의, 성장지상주의, 권력숭배, 등급주의,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인본주의, 공동체적 관계, 생태적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⁷²⁾ 이런 변화도 ‘비물질적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72) 곽 형모, *윗글*, 20쪽.

“교회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거버넌스 모색” 토론편1

이화옥 센터장(강남구자원봉사센터)

1.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인식 확장은 공유

오늘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는 서로 다른 섹터와 함께 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 하겠다.

발제문에서와 같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이웃이나 다른 소외 계층에 대한 단순한 관심과 배려 차원을 넘어서, 사회 차원의 공공성으로까지 인식이 확장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또한 개인의 문제를 사적 차원에서만 이해하게 되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기 힘들며 공공성 또는 시민 의식의 출발은 사적인 문제에 대한 공적 인식이며, 한 개인이 겪는 문제의 원인을 사회의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원인을 찾고 더 나아가 공동 대응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안에서 만남은 공적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토론자로서 공감한다.

이러한 인식 확장이 어려운 것은 교육이라기 보다는 더 근본적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원봉사 영역에서는 교육의 기회는 많고 내용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내용과 동기 형성의 초기 절차에 있어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공공성의 딜레마와 연대 형성에 있어서 자원봉사 영역도 근본적인 문제점이 교회와 같기 때문이다.

교회의 자원봉사활동이 전도에 있다고 평가받는 것과 지역의 자원봉사센터가 제도적 틀 안에서 실적위주의 성과를 높이는데 질주하는 모습은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참여자 또한 개인의 목적에 따라 자발성이 부족한 동기로 활동에 참여하였기에 오히려 자원봉사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자원봉사센터와 그 관련된 영역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체계 속의 일부로 정서적 동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목표로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인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뒤잇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라 불리는 2015년 이후 개발의제(‘POST-2015’ Development Agenda)는 유엔이 다가오는 2030년까지 이행할 빈곤 퇴치와 교육 보장, 성평등,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 식량 등 17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이슈를 공유하는 기회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여 절차에 따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제안하고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하여 함께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미래가 담보될 것이고 이것이 시민사회에 원동력인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라 여겨진다.

II. 교회와 자원봉사 영역의 차이와 다름을 존중

자원봉사 영역에서 보면 교회는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촘촘한 네트워크 갖고 있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현재 한국 교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대형교회는 자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교회내 예산과 인력,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⁷³⁾ 그러나 대부분 지역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는 이러한 교회와 연계될 경우 교회의 공공성 확보와 활용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완성도가 높은 봉사활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교회가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 욕구가 많지 않다.

교회와 자원봉사센터의 연계 봉사활동은 바람직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교회에서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의 모습은 유사하지만 그 동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발제자의 기독교 신앙과 전통이 공공성과 연대성 형성의 유일한 근원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자원임은 분명하며 이것이 한국 교회가 시민 사회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도 일리가 있다.

이만식(2007)의 사회봉사에 대한 목회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봉사 활동이 활발하다는 응답은 27.1%에 그친 반면에 저조하다는 응답은 72.2%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한 목회자의 88.0%가 교회가 사회봉사를 적극 실천해 한다고 생각하였고, 11.3%가 정부나 사회복지기관의 보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교회의 관심문제가 아니라는 응답은 0.8%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92.6%는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이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응답하였다.⁷⁴⁾ 이러한 조사 결과로 볼 때, 목회자들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교회들이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와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활동 제안은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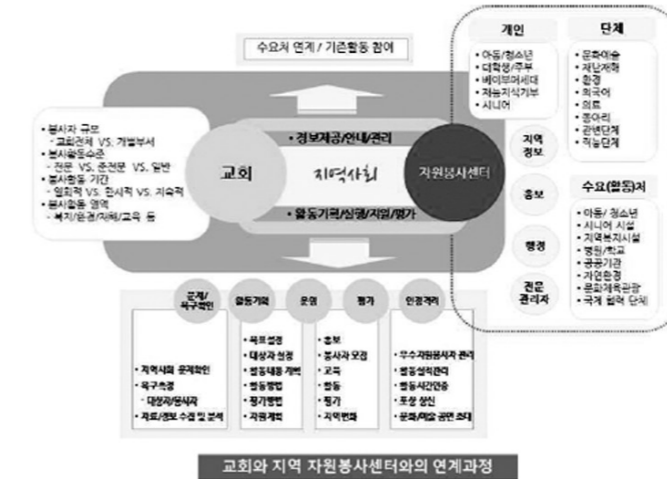
지역의 자원봉사센터가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자원봉사활동을 기획할 때 기업의 비전과 참여 동기, 그리고 활동 참여시 기업이 갖는 불편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 많은 배려를 한다. 즉 기업의 특성을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신앙적 공공성을 앞세워서 교회의 불편감을 배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토론자는 교회와 협력적 연계를 위해 교회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성과 연대에 대한 '차이'와 '다름'을 존중해야 하며, 이럴 때 지역에서 자원봉사센터와 교회와의 연계 고리가 마련될 것이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73) 김경동외, "교회와 지역자원봉사센터 연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모형 개발연구", (사)한국자원봉사포럼, 2012.

74) 이만식, "한국 기독교사회복지의 실태,"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기독교사회복지총람』, 2007.

III. 교회와 연계 방안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많은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실제적으로 많고, 섬김이라는 신앙적 자세를 갖추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교회의 수는 6만 개 가까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전국 관공서가 4,000여 개이고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기관을 모두 합한 행정 기관 수가 1만 2,000여 개이고, 사회복지시설도 2만여 개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수치인지 알 수 있다. 아마도 우리사회의 가장 거대한 사회적 자원일 수도 있지만 그 거대함이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집단의 가치가 절대화되어 내부의 구성원들에게는 확실성과 순응을 강제하게 되고, 외부 집단과의 열린 소통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고 무관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이렇게 거대한 사회자본이기에 자원봉사 영역에서 볼 때 교회가 매력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교회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는지 자원봉사센터는 잘 모른다. 또한 교회도 지역의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지원체계를 갖고 있는지 모를 것이다. 지역에서 교회와 자원봉사센터가 연계하는 과정을 제시해 보았다. 교회가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면 지역의 전문봉사단 또는 재능봉사단, 기업봉사단을 만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과 연대는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토론자는 이 연계과정에서 교회를 단순하게 규모가 큰 자원봉사단체로만 이해했던 오류를 알게 되었다.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지만 단발적인 활동이 많다. 그러나 기업의 역할이 명확하고 그 기업 참여동기와 활동 후 변화에 대한 기대가 부합한 경우 기업의 지역자원봉사활동이 지속적인 것을 경험하였다. 교회 또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 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교회에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 동기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아서 출발된 부정적 관계를 맺어왔던 것이다. 이제 교회를 활동처(수요처)로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교회가 주도적으로 계획한 활동을 일감으로 인정하고 지역의 자원봉사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의 문을 먼저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해본다. 일감을 계획할 때 지역의 특성과 자원봉사자의 욕구를 전달하고 교회의 지역 자원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면 교회와 자원봉사센터의 교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거버넌스 모색” 토론문2

한명섭 관장(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이승훈교수님의 발제 - 기독교 자원봉사활동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 하며, 교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발제 내용중 토론자가 적극적으로 ‘동감’ (공감)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현대 사회의 흐름은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공공영역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불안정성’, ‘불확실성’, ‘불안’ 등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넓은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 ‘무보수성’, ‘공공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이 경우 자원봉사는 개인차원에서 이뤄지는 기부나 봉사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정치참여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 될 것이다. 이런 특징의 자원봉사활동은 그 본질상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기독교는 특히 그러하다. 사회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이해관계나 친밀성을 넘어서는, 공공의 관점에서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공선의 실현을 위한 교회의 노력은, 같은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 밖의 다른 조직체들과 연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공공활동에의 참여는 참여자들의 인식을 확장시켜 공공성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나 이해관계를 상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준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에 관한 한국 교회의 과제도 이러한 공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그 결과가 전체로서의 공공성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
- 차이를 존중하면서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동감은 차이를 존중하면서 연대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다. 타자와의 차이를 전제하면서 동시에 그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연대의 행위까지를 포

함해야 진정한 동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가르침 - 환대 (hospitality) - 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푼 환대를 닮은 자들, 타자들과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한국 교회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환대를 실천하고, 다원주의 시대의 연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 “참여함으로써 참여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인간은 공적 생활에 참여할 때,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만 머무르고 말았을 인간 경험의 한 차원을 자신에게 개방하는 것이며 이 차원은 완전한 ‘행복’의 일부를 구성”한다.
-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런 작은 성공의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기존의 습관은 균열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희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II.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발제자가 제안했듯이 시민사회의 성숙을 향한 공공성의 향상과 연대의 형성은 1) 공공 활동에의 참여 기회 제공하기 2) 인식의 확장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하기 3) 일상의 토론 맥락 형성하기 4) 작은 성공 이야기 만들기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발제 내용에 동감하면서 교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차이’를 존중하면서 ‘공감’ (Empathy) 하고 연대하기

- 발제자는 차이를 존중하면서 연대하는 방법으로 ‘동감’을 들고 있다. 타자와의 차이를 전제하면서 동시에 그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연대의 행위까지를 포함해야 진정한 동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언론은 100년만에 세운 ‘미국 흑인박물관’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요약 인용 해보면 ‘이 박물관은 미국 남북전쟁의 참전용사들이 제안한 지 한세기만에 5억4000만달러의 모금으로 건립되었다. 2만여명의 참석자들은 잇단 총격사고로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가 여전한 가운데 흑백 갈등은 결국 미국사회가 정의와 공평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바마대통령은 개관 기념 연설에서 흑인들이 ‘미국의 부담이나, 오점, 혹은 동정이나 자선의 대상이 아니다’며 ‘우리는 미국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물관의 전시물들은 흑백 갈등을 더 큰 맥락으로 보게 해서, 미국 사회의 진보와 약점 모두를 보게해 줄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신문 2016.9.25.) ‘부시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 박물관은 진실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준다”며 “위대한 나라는 역사를 감추지 않으며 오점을 직시해 이를 바로잡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관식 행사에선 미셸 오바마여사가 부시 전 대통령을 옆에서 껴안는 장면도 등장했다.’ (중앙일보 2016.9.26.)

오바마대통령이 ‘흑인박물관’ 개관 기념 연설에서 흑인들이 ‘미국의 부담이나, 오점, 혹은 동정이나 자선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표현했듯이 한국 사회복지영역에서도 장애인, 노숙인, 이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양육미혼모, 1인가구 저소득 노인과 여성 등은 더 이상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며 ‘차이’로 인한 ‘차별’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가정 역시 세금을 축내는, 사회의 동정이 필요한 ‘불우이웃’이 아니며, 주거와 교육, 의료와 생계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국민인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복지서비스영역에서도 사회적관망이 약하고 사회적 선택의 기회가 적은 계층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 (연계)할 때 ‘이용자 참여’를 주요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파트너십(partnership), 시민권(citizenship), 권한강화(empowerment) 등을 중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장애인복지영역에서는 정책결정과정과 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장애인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부모의 참여가 다른 복지영역에 비해 상당한 정도 강화되었으며, 이는 장애와 관련된 정의와 용어의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용득교수의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disability)는 의학적 손상(impairment)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며, 손상된 능력이 장애를 구성한다고 하였다(Chubon & Bowe, 1994).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추세이며, 장애는 신체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생활 참여를 제한하는 상태에 주목하고 있다. (김용득편저, 장애와사회복지, EM커뮤니티, 2014. P.41.)’

‘서양에서는 과거에는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the disabled’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disabled people’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애를 지칭하는 용어가 부정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differently abled peop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김용득편저, 장애와사회복지, EM커뮤니티, 2014. P. 41.)’

교회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타자와의 차이를 전제하면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연대하는 행동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동정’이 아닌 ‘동감(공감)하고 연대하는’ 몇가지 자원봉사활동을 생각해 보면,

- 발달장애인이 살기좋은 우리마을 : 발달장애인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이웃’이 많은 마을. 발달장애인 친화적인 도시만들기 등 자원봉사활동기획 및 참여
-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인 등 후견인 (특정후견, 한정후견) 자원봉사활동
- 약 100만명에 가까운 외국인 (이주자, 이민자 등)에 대한 배타성을 줄여가는 자원봉사활동 : 문화적 이해, 외국인머느리 시어머니되기 등
- 양육미혼모 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형성하고 취업 등 지원활동에 참여
- ‘불우이웃’이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이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는 노력

2. '관계'의 강화 혹은 회복을 위한 노력

서울복지재단에서 발간하는 복지이슈투데이 9월호는 '노인의 고독사'를 다루고 있는데 시사하는 점이 많아 요약 인용해 본다.

'혼자서 임종을 맞이하고 상당기간 방치된 후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한다. KBS파노라마 팀에서 보도한 고독사 의심사례수가 전국적으로 11,002건, 서울만 2,343건(약 21%)이다. 만 65세 이상의 무연고 사망자수도 '13년(695명), '14년(864명), '15년(1,089명)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의 원인 중 첫 번째는 '무연(無緣)'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단절과 무관심에서 오는 '고립된 삶'이다. 최근 OECD 사회통합지표 분석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적관계(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부문이 10점 만점 중 0.2점으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전통적 가족 관계망의 붕괴이다. 고독사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 공적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가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독거노인, 신체 및 정신질환 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부녀회, 청년회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망 간의 '사회적 가족' 결연사업을 통해 '이웃사촌문화 회복' 등 우리 고유의 전통적 정서 회복이 필요하다' (서울복지재단, 복지이슈투데이, 2016년 9월호)

최근 발표된 한국사회 공동체지수를 보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한 이웃이나 친구' 등이 OECD국가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약 인용해 보면,

'한국의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개 회원국 가운데 28위로 나타났다. OECD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2012년 24위, 2015년 27위에서 올해는 28위로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수는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산출한다. 한국은 환경, 공동체 의식, 일과 삶의 균형 3개 부문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공동체 부문 순위는 37위였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 친구, 이웃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5.8%로 OECD 평균(88%)보다 12%포인트 낮았다. 이밖에 교육(6위)과 시민참여(10위) 부문은 상위권에, 주거(17위) 직업(17위) 안전(21위) 소득(24위)은 중위권에, 삶의 만족도(31위)와 건강(35위)은 하위권에 올랐다. (동아일보 2016.6.5.)'

'지난 9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평균 25.8명(2015년 기준)으로 OECD국가간 평균 12.0명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연령에서 자살이 감소했지만 노인 자살은 더 늘었다. 70대의 자살사망자는 1년 전보다 8.5%, 80대는 6.4% 증가했다. (중앙일보, 2016.9.27.)'

고독사 (혹은 고립사), 약한 사회적 관계, 높은 자살율, 청년과 노인이 다수인 1인가구의 증가와 50%에 달하는 1인가구의 상대빈곤율 (보건사회연구원, 2015) 등을 극복해 가는 관계의 강화 혹은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를 위한 몇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생각해 보면,

- 1950년대 한국전쟁과 1970년대 경제개발기 등 근현대를 살아 온 '노인' 분들이 '당당한 소비자'와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선배시민' 으로서 역할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
- 서울복지재단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독거노인, 신체 및 정신질환 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부녀회, 청년회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망 간의 '사회적 가족' 결연사업을 통해 '이웃사촌문화 회복' 활동
- 어려움에 닥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 의 확대 : 지방의제21 시애틀지표중 '이웃집사람의 이름을 아는 수' 가 중요한 지표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교회자원봉사활동에서 이를 지역공동체 형성의 지표로 삼아가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3. 교회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거버넌스 모색

서울시자원봉사센터 10주년 기념백서 (2006~2015)를 보면, 지난 10년간 서울시민의 자원봉사참여율은 1,127,807명 (2007) 에서 3,044,169명 (2014)으로 1.9배 증가했고, 자원봉사등록율은 5.84% (2006) 에서 20.24% (2014)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뿌리단체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사업은 492개 사업을 지원했고, 봉사자와 시민을 위한 교육은 433회 28,227명 참가, 자원봉사관리자들을 위한 교육은 177회 4,762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10년간 운영된 캠프수는 625곳에 7,498명의 상담가를 배출했고, 315단지의 APT봉사단활동에 1,518명의 리더가 양성됐다는 점이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역임한 김경동교수는 교회의 사회적 기능과 신공동체운동을 강조하면서 Covey의 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인들을 재교육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한다.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 "우리 모두 '동참자(joiner)' 가 되자!"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 무슨 일이나 집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동참이지만 기왕이면 교회 중심의 사회참여도 중요한 동참의 기회를 제공한다.
- "우리 모두 자원봉사자 (volunteer)가 되자!" 잘 알려진대로 자원봉사는 남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실은 자신의 인간다움을 키우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이웃사랑의 실천이 자발적 봉사활동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큰 보람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김경동 지음, 급변하는 시대의 시민사회와 자원봉사운동, 아르케, 2007. P.366). 끝

제언

한태수 목사(은평성결교회 담임목사)

메모장

메모장

메모장